

수사관들은, 이것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보안(비밀)의 유지, 아내의 확산에 의해 확실하게 되었다고 안심했던 것이다.

전화도청이나 우편물의 검열은 당연히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독일제라는 만년필도깨비를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게 돼, 내 생활은 위축되고 살맛이 안났다. 전파발신기라고 설명되었는데, 남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무척 신경을 써야 했다. 후일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집에 놓았던 예의 도청기에서 보내지는 전파는 수신 가능한 반경이 짧아, 우영기가 우리집에서 수신 가능한 범위에 차를 대기하고 녹음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한다. 겨우 잡혀 들은 소리는 우리집 현관 옆에 있는 개가 짖는 소리뿐이었다고 한다. 도청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영기는 다음날 그 종이봉지를 회수해 갔던 것이다.

그들이 나 다음으로 겨냥하고 있는 서성수형의 검거를 위해, 나는 철저하게 감시받아야 했다. S공작(S가 어떤 약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권력에 의한 비합법적인 도청을 그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으로 물론 우리집과 집주인 전화는 도청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에게 오는 우편물은 집배원이 먼저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 내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통장, 반장들은 보안사의 협조망으로 활용되고, 직장의 전직 보안부대원인 박기사가 감시의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상층부에 나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공항만 수배의 A급(김포, 김해, 제주 각 공항 및 부산항의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한 수배로, A급은 출현시 신병확보, 즉 체포)으로 취급되었고, 인적 사항만으로는 성이 차질 않아, 서빙고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나의 사진까지 뿌렸다.

음모

서성수형을 비롯해 한국 왕래 가능성이 있는 내 주변인물은, 내게 접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B급수배(미행감시)를 받고 있었다. 즉 한학동 출신의 중요멤버는 수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성수형에게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므로, 무역관계의 일로 내 선배들이 한국을 방문해도 신병연행은 집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서성수형이 곧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성수형의 한국방문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하나의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서성수형의 부인의 친정 동생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군대에 있는 사람과 그 상관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면회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너의 형제는 몇 사람이지?”

“누님과 형님이 있습니다.”

“누님은 벌써 시집 갔나?”

“예, 재일동포에게 시집가서 지금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 외국에 있으면 늘 만나지 못해 그림겠는걸. 편지는 오나? 그래, 고국에도 자주 올 수 있나?”

“예, 아이를 낳아서 이번 8월 15일쯤이 휴가인 모양인데, 매형과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겠다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성수형의 입국시기는 파악되었다. 8월 17일, 나는 소재증명을 위해 서빙고에 전화를 걸었다. 이덕룡은 “급한 번역물이 있으니 좀 와서 협력해 줘”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나는 크라운호텔로 택시를 몰았다.

“서성수가 체포됐어. 그제야 8월 15일 김포공항에서 내가 데려왔어. 그들은 북한에도 갔다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 네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을 몰라. 지금도 일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덕룡은 재잘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네 감시는 이제 끝났다. 너를 감시하느라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김병진, 지금 기분이 어때?”

나의 해방과 서형의 검거를 저울에 달고 있다. 나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서형의 검거를 방관하고 만 셈이다. 그러한 나에게 대해서 이덕룡이 한 말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봐 어때, 무슨 말을 해봐.”

“어떻게 대답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한국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내가 만일 시도했다면,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다시 붙잡혔을 것이다. 나는 밀항도 생각했다. 하지만 꺾먹이를 안은 밀항은 그 루—트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불가능했다. 그런 생각에 고민하면서 나는 마음을 닫고 1개월 이상을 보냈다. 그 결과가 서형의 검

거였다.

나의 두 손에 다시 수갑이 채워졌다. 서형 검거로 나의 정신적 동요를 증폭시키려는 효과도 그렇지만, 수갑이 채워진 채 서빙고의 복도를 지나가는 내 모습을 서형에게 보여줌으로써, 후배의 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체포됐다고 하는 자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후일담에 의하면, 수갑을 찬 내 모습을 보고, 서형은 전율했다고 한다. 서형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수갑이라는 소도구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수단은, 언제나 야만스럽고 서퍽짜리 연극같은 서툰 연기로 일관해 있었다. 수갑이라는 소도구에 의해서 서형에게는 전율과 죄책감이, 나에게서는 좌절과 실망감이 생기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미리 짜여져 있었던 것이다. 서형은 물론이고 나에게 대해서도 처음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김용성이 연행 두번째에 나에게 말했다.

“네가 말한 것을 믿어 온 것은 아니다. 감추기만 한다면 서성수랑 짝 끌어 교수대에 보내겠다.”

복도를 통해서 남자들의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그 사이 사이 “오마이냐”라는 한국말 억양의 사투리가 돼버린 일본말이 들려오기도 했다. 서형 때문에 일본어를 아는 사람을 데려온 것같았다.

‘김병진에 대한 연행사실을 보충해서, 재일동포사회에 누설하지 않고 보다 큰 인물의 입국을 기다려 「성과」를 확대하자’—— 이것이 「유인공작」이다.

서빙고에 있는 서형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간첩죄 성립의 플코스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간단하다. 조총련계의 인물을 적당히 이어놓으면 충분하다. 「물증」이라는 것은 필요없다.

예컨대, 서형의 경우에는 패스포트를, 내 경우에는 패스포트와 학생증이 서울지방 검찰청에 송치된 물증의 전부였다. 이것만으로 「무기 또는 사형,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첩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포섭」

수사관들의 기묘한 협잡이 계속됐다. 그들은 내가 언제 서성수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의해 「포섭」되었는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포섭」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돼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어본즉, “언제, 남조선혁명을 위해 일하자고 권유받아 OK했는가?”라는 것이라 한다. 그런 기억도, 사실도 내게는 없다. 그들은 내가 고오베 시내 ‘동공원’에서 서형에게 「포섭」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서형은 일상시에 “조국의 현실에서 눈을 떼지 말고, 여러가지를 검토해보자”고 말했지, “혁명을 하자”고 말한 적은 없다.

그들은 K, N 등 제일 한국인을 계속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소형 전기고문기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N에 대신해서 서성수형의 동기이기도 한 선배 P형이 연행된 것을 알았다. P형은, 보안사령부가 「유인공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짓 정보를 믿고, 「서성수의 병문안」을 왔다 가 연행되었다.

보안사령부는, 그의 가족에게 서성수형의 연행사실을 입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만일 누설하면 서성수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연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성수는 한국에 오자마자, 관광여행을 하던 중에 서울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라고 하고, 이 시나리오를 가족에게 당부했다. 서형의 부인은, 남편을 구제하겠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또 일본에 있는 시부모님의 걱정을 생각해서 보안사령부의 지시에 따랐다. 좀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의 가족들은 서형의 동생 K군을 서울에 보냈다. K군이 연행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당국은 형제스파이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K군은 다행히 풀려났다.

다음에 희생된 것이 P형이다. 서성수형의 「교통사고에 의한 입원」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 귀향한 P형은, 친우인 서형을 문병하러 갔다. 순천향병원의 수위는 보안사령부에서 지시된 행동지침에 따라 ‘서성수 방문객 출현’을 보안사령부에 보고했다. 수위는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에 수사관들이 급히 달려와 P형을 연행했다. 그들이 가장 알고자 했던 것은 서성수형의 「입북」을 알선했다는 고오베의 C씨와 P형과의 관련이었다. 서형의 교통사고가 사실인가 어떤가를 확인시키기 위해 C씨가 P형을 보냈다. 그래서 P형도 스파이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그들은 바란 것이었다.

P형은 내 방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듯, “욱, 욱”하는 신음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김영기(金英基)라는 2계의 수사관이 내 방에 들어왔을 때, “P놈도 좀처럼 제 목숨에 못 죽겠어”라고 말하면서, 독일제라는 회중전등을 좀 크게한 것같은 것으로부터, 도어의 손잡이에 불꽃을 날려 보았다. 소형 전기고문기였다. 물론 나에 대한 위협이었다.

“이런 유유한 놀이를 하고 있을 때가 아냐, 너와 서성수, P와 같은 자식은 뒷마당에 데리고 가서 6·25때처럼 빵빵 해버리면 그만이야.”

김영기한테서 검고 묵직한 그 고문기의 불꽃이 들쭉뒤질 때마다 P형은 “욱, 욱” 신음소리를 냈음이 틀림없다. 뒷날 그 물건을 자세히 본즉, 독일제는 아니고 미제였다. 미군 CIC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물품에 지나지 않는 재일한국인

그들에 있어서 재일한국인은 인간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물품」이었다. 그들이 이름을 붙인 「서성수일당 사건」을 만드는 한편, 그들은 또 하나의 재일한국인에 관계되는 사건을 만들고 있었다. 「박박(朴博) 사건」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양대학 대학원에 유학한 경험을 가진 박박씨는, 귀일 후 부친의 친구 O씨가 경영하는 비즈니스학교에 취직했다. 그런데 그 O씨의 가족 중에 북한재주자가 있어서, O씨는 소위 「배후불온자」였다. 형제를 만나기 위해 북한에 다녀왔다. 보안사령부의 재일협조망인, 동경공안 직원 사노이찌로오(佐野一郎)와 폭력단 야나가와구미(柳川組)의 조장 야나가와겐지로(柳川組次郎)인 양원석(楊元錫)이라는 콤비가 「일본과 한국은 형제국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국군보안사령부에 통보했다. 보안사령부로서는 절호의 첩보여서 놓칠 리가 없었다. 그 O씨의 비즈니스학교 용무로 박박씨는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박박씨를 요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간단했다. O씨는 일본에서는 유명해서 잡지에서도 입지전 중의 인물이라고 소

개된 바 있었다. 김용성의 말에 따라 서빙고에서 나는 그 잡지를 한국말로 번역했다. 그 잡지를 첨부자료로 가지고 온 것은 사노였다.

O씨가 「조선적」이라는 것도 쓰여져 있는 자료이니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입증」은 문제없었다. 박박씨의 친척들에게는 「고무찬양죄」가 적용됐다.

그것이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을 당시의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취직하고 있는 곳의 경영자가 「조선적」이라는 것만으로 스파이라고 한다면, 제일동포의 몇만 명이 「북의 비밀 공작원」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고무찬양죄의 적용만 하더라도 뉘앙스를 조금 바꿈으로써 어떻게든 된다. ‘지껄었다’, ‘들었다’ 하는 말을 폭력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도록 하면 만사는 끝났다.

박박씨의 아버지, 윤씨가 나의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회화」는 그저 “들었다, 듣지 않았다” “지껄었다, 지껄이지 않았다”라는 말의 주고받기뿐, 폭행당하는 고통의 비명이 수사관의 욕지거리에 섞여서 내 방에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아비규환은 그 소리만 들어도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면, 인간은 그것에 익숙해지는 모양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났구나’라든가, ‘오늘은 되게 당했구나’라든가 매일의 고문을 총평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져버린 자기를 알아차린 때에는 스스로도 놀랐다. 박박씨의 아버지는 사령부의 날조의도를 알아차렸는지, 광기의 세계에서의 고통보다도 교도소에서의 2, 3년의 인내를 선택해 버렸다.

양회장이 이끄는 우익단체, 아시아민족동맹이라든가 개인적인 협조망에서 보내오는 일본어 자료는 내가 모두 번역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감시병은 이 서빙고에서 고문의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내 아내를 연금하던 정명희(鄭明姬)도 자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오는 날에는 으레히 그 망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이를 중대시하고, 고사제를 지냈다고 했다. 차마 그냥 죽을 수 없었던 통한의 원혼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스파이보도

김용성은 나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면서 박박씨와 서성수형의 두 성과에 회심의 미소를 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와 상관들의 진급 심사에 보다 신선한 이미지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전임자들이 상투적인 수단으로 구사해 왔던 「보도의 묘」를 이용하기로 했다.

10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단정한 옷으로 갈아 입으라고 해서 아내가 차입시켜 준 소매 긴 가을옷을 입었다. 수사관들이 굽신거리며 「과장」이라는 인간을 안내해 왔다. 말의 억양과 작은 몸집으로 보아 충청도 사람이라는 것을 곧 알았다. 우종일 과장은 초면인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김병진, 나라를 위해서 하는 보도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란다. 네 얼굴은 TV 화면에 짐은 유리로 보는 정도밖에 비추지 않아! 목소리도 바꾼다.”

우종일 과장은 구체적으로 상세한 시나리오를 나에게 지시해 주었다. 김양규(金洋圭)라는 육군중사는, 상사 앞에서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을 걸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의 일을 말하는데 뭘 고민해! 아직까지도 우리들을 거역할 작정인가!”라고 흥분했다.

비열한 인간들이 잘도 모여들었다. 이 자가 김용성의 부하라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과장 앞이라고 위세를 부리는 꼬락서니는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나는 밖으로 끌려 나갔다. 보도기자들과 카메라맨 5, 6명이 뒷마당에 모여서 나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모두들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었다. 비스듬히 좌우에서 나를 찍기 위해, 두 대의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KBS요, 다른 하나는 MBC였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잔디밭에 앉아 있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 코치를 받은 다음, KBS의 아나운서에 의해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과장 우종일, 김용성, 이덕룡과 고병천, 최홍상, 김국련, 김효수(金孝守) 등 2계의 수사관들과 어디의 누군지도 모를 작자들이 합세해서, 카메라 둘레에서 나의 데뷔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내게 댈 때마다, 나는 우종일이 말한 내용대로 지껄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정말로 내가 한 일같이 지껄이는 것이니까, 배우근성에 투철하지 않는 한 될 성 싶은 일이 아니었다. 김용성이 자주 녹화를 중단시키고 주문했다.

“김병진, 네가 학생데모를 선동한 부분, 국내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지 않은가?”

“국내 학생의 신상정보를 서성수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지 않은가?”

김용성은, 자기가 만든 스토리의 결락이 마치 나의 부주의로 빠졌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 요구는 한정이 없었다. 그러나 카메라맨들을 의식하고 있었음인지 말의 톤은 보통때의 김용성답지 않게 부드러웠다. 나는 배우처럼 머리 속에 새겨 넣은 줄거리를 읽어 내려갔다. 뭘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기분이었다.

녹화가 끝나자, 수사관들이 “잘 했다”고 한결같이 나를 칭찬했다. 사람의 기분도 모르고 제멋대로라고 나는 마음 속으로 투덜거렸다. TV에는 서성수형도 나도 가명으로 내겠다고 그들은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보도기자들도 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이것으로 좋습니까? 아무래도 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이라고 불평을 말해 봤다. 그런즉, KBS의 기자는 나에게서 대답도 않고, 고병천을 향해, “사소한 부분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보도스파이니까”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보도스파이」—— 묘한 말도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사실 따위는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말인가. 마스크에 종사하는 인간이 「어차피 보도스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스파이보도는 거짓말이라도 좋다는 뜻일까. 「국민의 대공경계심을 계발·고취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꾸며진 기만의 하나가 스파이보도의 본질인 것이다.

조서작성이라는 이름의 흥정

서성수형의 공술이 끝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진술서의 작성이 시작되었

다. 그것은 나의 「담당수사관」 이덕룡이 지시하는 내용을 베낀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덕룡은 “너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내가 “최현배 선생”이라고 대답했다. “최현배? 그의 현주소는? 지금 몇 살이지?”라고 즐기차게 이덕룡이 묻는 바람에 나는 기가 찼다. 그래서 나는 장소도 망각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이덕룡씨, 당신은 정말로 최현배 선생을 모릅니까? 그분은 진작 돌아가셨읍니다. 옛날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함흥형무소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다가 해방을 맞은 애국자지요. 연세대학에서 국어학을 전공하는 내 동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국민학교 아이들이라도 최현배 선생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이덕룡의 무식을 비꼰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덕룡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비꼬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안한 말이지만 보안사령부의 수사관이라는 것은 취학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인 것같았다. 화가 난 이덕룡은 말이 안되는 질문으로 나를 추궁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존경하는 사람은 김일성이지?”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당신들의 의도대로 말을 시키고, 뒤집어 씌울려고 하느냐?”라고 나는 이덕룡에게 대들었다. 이덕룡은 “알았어, 알았어, 네 말대로 해주지”하고 이때만은 순순히 꺾이는 것이었다.

서성수형의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의 공술과의 정합조작이 끝나자, 나에게도 진술서의 작성이 지시되었다. 조서제목은 「간찰 김병진 신문조사서」였다. 항목별로 수사관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임의성」은 티끌만치도 없었다. 수사당국의 「고의」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말 작문이다. 단지 권력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재일동포의 마음을 누가 재판할 수 있을까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민의 마음을 긴장시키지 않고는 못배기는

「천하의 대보안사령부」——이지만, 실은 거짓과 어리석음의 집단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믿는 것은 「국가의 권위」와 「민중의 어리석음」뿐이다. 그러한 자들이 권력기구에 의해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의 증추요, 권력을 만들어 왔다.

진술서를 쓰는 데 나는 며칠을 소비했다. 서성수형의 방에서 기발한 날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내용에 맞춰서 나의 진술서가 다시 고쳐지곤 했다. 그 지시는 물론 이덕룡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까닭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의 부정에 의해 서성수형이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생각할 때, ‘이쯤의 일, 저쪽의 말대로 맞춰 두지’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서성수형은 「북에 갔다 왔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이 광기의 무리들로부터 빠져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가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은 착잡할 것이다. 더욱이나 또 나라는 한 사람의 후배가 자신과 연관되어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서성수는 북에 간 일이 있다」——그렇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단된 조국의 남쪽, 더구나 국민에게 총부리를 대면서 존립하는 그 군사독재정권에서, 조국과 민족을 찾고, 그 미래를 갈망한 재일동포의 사상적 방향, 마음의 갈등의 궤적에 대해서 재판할 권리 따위는 누구에게도 없지 않겠는가! 만일 그것을 재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오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묘한 주문

내 진술서가 대체로 끝나갈 무렵, 이덕룡이 나에게 기묘한 주문을 했다.

“그 진술서가 끝나면, 이번에는 너의 자서전을 쓰는 거다.”

“뭘니까, 그 자서전이라는 것은?”

“위에 계시는 훌륭한 분이 너의 경력과 인간성을 보자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 잡혀 와서 도움을 받은 놈은 없었으니까, 너에게 상당한 관심이 있는 모양이야.”

나는 피의자로서, 보안사령부와 더 이상의 인연을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

이 절실했다. 나는 한시바빠 이 건물과 이 자들로부터 도망쳐 나가고 싶었다.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서전이라는 것을 썼다.

“이것으로 됐죠?”

이덕룡은 짧다고 했다. 훌륭한 사람이 성의가 없다고 화를 내면 큰 일이라고 더 길게 쓰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썼다. 며칠 지나서 이덕룡이 말했다.

“김병진, 상층부에서는 너를 보안사령부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한다.”

백주의 소나기란 이런 일을 두고 말하겠지. 보안사령부의 요구는 나에게 있어서 청천의 벽력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너를 도와준 우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보안사령부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이란 말이야.”

「역적」을 위해, 전두환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이, 보통사람에게 이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채용

가족과의 재회가 얼마나 마음을 안심시키는가를 나는 가슴깊이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아내의 무언의 표정을 결혼으로 보면서 아기를 껴안았을 때, “그렇지 않아. 아직 끝나진 않았어!”라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기분은 나지 않았다. ‘거부하기 위한 구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들을 납득시킬 구실을 생각하자.’ 내 머리 속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의 「출근」은 잠시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그만두겠다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김용성은 “훌륭한 분이 ‘집어 넣어’ 한 마디만 하면 일은 끝나는 거야!”라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서성수형은 형무소행이 결정되어 있는데, 나의 구제결정은 뭐 내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한 때문은 아니다.

“그럼, 나도 형무소에 넣어 주시오.”

김용성은 온갖 감언이설로 내 요청을 무시했다.

며칠 지나서 그들의 요구를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보안사령부에 근무한다면 내가 이혼하겠다는 구실을 말하는 것이 어떨

까요?”

이혼 운운의 구실도 예견한 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음소작전

그 즈음 서성수형의 신병은 서대문구치소로 옮겨졌다. 나와서 면담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고, 서형은 철창 속에 갇혔다.

김용성은 서형을 구치소에 보내는 날 나를 불렀다.

“서성수는 오늘 구치소로 갔다. 너도 같이 가는 것인데 혼자 갔다. 서성수는 최후에 말했어. 김병진만은 구해 달라고, 구해주면 자기의 어깨의 짐이 한결 덜어질 것같다고.”

거짓말을 딱딱듯 하는 김용성이지만, 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7월 9일 연행된 이래 처음으로 눈두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협박을 받고, 아무리 폭력을 당해도 전혀 흐르지 않던 눈물이 비로소 내 뺨을 적었다. 서형의 고뇌, 자기의 가족과 나에 대한 측은함이, 그 한 마디로 역력히 전해오는 것이었다. 서성수형의 말이라고 김용성이 전한 이 한 마디는, 이 서빙고에서 처음으로 듣는 진실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서성수형의 말에 가슴이 메인 나에게 김용성은 음소(泣訴)를 결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김병진, 서성수는 인간이 돼 있어. 훌륭한 놈이야. 우리들도 서성수 같은 인간을 옥에 가두어 두고 싶진 않아. 판결은 중형이 되겠지만, 수사당국의 의견이 은사나 특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서성수의 조기석방에 우리들이 발벗고 나설 거야. 그 때문에 김병진의 헌신이 필요해. 네가 기대를 저버린다면 서성수의 석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보장 못해! 눈 딱 감고 2년간만 국가에 봉사하는 거야.”

허식에 가득찬 김용성의 말을 통해 나는 또 다시 보안사령부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을 느꼈다. 나의 직원채용과 서형의 석방을 저울에 다는 등, 제멋대로의 속임수이다.

3개망 일망타진

1983년 10월 19일, 보통때와 같이 서빙고에 나간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 2개의 수사관들이 TV 앞에 달라붙어 있었다. 안경을 쓴 중년여성이나 운서가 10시 10분경 특별보도를 시작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서성수일당 등 3개망의 간첩단이 일망타진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일성으로 시작해서, 보안사령부의 시나리오가 톱뉴스로서 취급되는 것을 알렸다. 우종일 과장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했다. 나의 압수당한 패스포트가 비취지고 우리 아기 얼굴이 크로즈업 되었다. 역시 속였다. 나도 서형도가 명으로 내고, 얼굴은 비추지 않고 목소리도 바꾼다던 저들의 약속은 완전히 깨져 있었다. 아기까지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요성이 끌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스파이나? 저들이 제멋대로 만든 이야기에 「보도스파이」라고 꺼리낌없이 말하는 어용메스컴과 군사독재의 유치하고 비열한 합작이 아닌가! 나는 어느 하나의 사실도 내 뜻대로 말한 기억이 없다. 그것이 「국민의 대공경각심을 계발한다」는 구실로 뻔뻔스럽게 통한다.

김용성은 보도가 끝나자 또 나를 불렀다.

“구체성을 나타내고, 국민에게 실감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명을 냈다. 내 힘으로는 도리가 없었다.” 이 남자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부터 계획되었을 터이다.

그날 석간에는 「3개망 일망타진」이라는 주먹만한 표제가 요란스러웠다. 이 나라의 군사독재는 나를 극한 상황에 처박음으로써만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열하고 비참한 존재다. 서형은 욕에 간헐했지만 그의 양심까지를 욕에 얹어낼 수는 없다.

집에 돌아온즉 일본의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 학교친구들이 찾아왔다. 구속 기소되어 감옥에 가야 할 인간이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다.

광기의 음모를 펼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발표가 있던 날, 스파이의 「아지트」가 같은 동네에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혼자서는 무서웠던지, 몇 사람인가의 주부들

이 우리집 현관 앞에서 신문에 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다 여기다!”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뭘 볼 일이라도 있는가’라는 모습으로 훑어보았다. 동네에서는 곧 소문이 퍼져, 「거짓말보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일 쭈뼛쭈뼛한 사람은 통장을 맡고 있는 복덕방 아저씨였다. 그는 보안사령부의 「협조망」으로서, 이전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감시해 왔으니까.

복덕방이 「협조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 것은, 이덕룡 등이 심사실에서 막 가지고 들어온 번잡한 서류를 내가 훑쳐 보았기 때문이다. 내 담당수사관인 이덕룡은, 자기의 일을 내 방에서 했다. 그는 서류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누누히 못을 박았지만, 서빙고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나는 요령껏 그 서류의 내용을 보았다.

그 서류에는, 통장과 집배원이 「협조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가 띄어져 있었다. 그리고 보니, 통장인 복덕방 아저씨가 내가 연행되기 조금 전에 「주민조사」라는 명목으로 두세 번 우리집을 방문, 나의 신상에 관해 묻고 간 일이 생각났다.

어쨌든 「보도」 이래, 내가 그 복덕방 앞을 지날 때마다 이씨(복덕방 아저씨)는 모습을 감췄다. 그는 나를 스파이라고 말함으로 보안사령부에 협력해 왔다. 보도에서도 나는 어김없이 스파이였다. 그러나, 그러하다면, 스파이인 나는 형무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될 터인데, 자기집 앞 큰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해가 잘 안되었던 그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거리(사회)라는 것은, 그 뒷면을 알고 보면 불신의 거리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어디서 누가 사람을 물어 뜯기 위해 준동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리가 아닌가. 불신의 근원은, 통장이나 집배원의 그릇된 시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도 권력에 의한 조종인 것이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비열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가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나는 서빙고로 왔다갔다 해야만 했다. 이덕룡이 나에게 「위조영수증」 쓰기를 시켜서 나는 놀랐다. 필적을 여러가지로 바꿔서, 이름도 적당히 생각해서 영수증에 싸인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몇백만 원이나 되는 영수증을 작성하는데, 어디에선가 끌어모아 온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후,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가공의 명의로, 예컨대 「망원협력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만든다. 그런 가짜영수증 가운데서 비교적 정직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본의 공안직원과의 것이었다. 예의 「크라운호텔」에 머문 사노 이찌로오의 체제비에 관계되는 모든 영수증이 서빙고에 와 있었다. 사노나 야나가와구미와 웅대한 것이 장병화(張炳華)라는 노인이었는데, 장의 형상은 몽고사람같고 몸집도 컸다. 일본어를 조금 알아서 재일협조망의 파이프역(중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덕룡은, 나에게 실명으로 영수증을 쓰라고 했다. 액면은 10만 원. 명목은 「생활비보조」. 영수증에 나의 이름과 함께 기입된 10만 원이 나에게 주어진 적은 없었다.

나는 그들의 그러한 작태를 보고, 아직까지 가난한 내 조국에서,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속여지면서 낭비되는 현실에 아연실색했다. 이 자들의 하는 방법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었다. 위조영수증이라는 유치한 수단으로 공금을 약탈하는 것이었다. 공금횡령죄를 말한다 해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입각해 권력층의 고발이 없으면 사법부는 까딱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범죄는 누구도, 거리낄 것이 없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공문서를 위조해도, 한국형법에 정해져 있을 터인 「유괴, 감금, 폭행치상, 협박,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관명사칭, 주거불법침입, 횡령, 절도, 명예훼손 등등」의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범죄가, 한 번이라도 법정에서 취급된 적은 없었다. 법률 역시 권력을 위해서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무렵부터 나에 대한 까닭없는 감시, 「출근」이 해제되었다. 이미 대학원에는 휴학원을 냈고, 직장복귀도 안되었다. 사람을 만나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어느날 지면이 있는 재일동포 유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애써 보안사령부에 대한 혐구를 피했다. 사람의 예감이라는 것이 뜻밖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뒷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도 먼저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그들의 지시에 의해 나의 언동을 살피기 위해 이용되었던 것이다.

1983년(하)

해고

서류의 작성이 모두 끝나, 나는 해고되었다. 며칠간 마주 앉아 있었던 C 씨와는 이별인사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돼. 이쪽에서 연락할 때까지 집에 있어. 멀리 가지 말고.”

이덕룡의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서빙고를 떠났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이덕룡은 또 나를 불렀다. 치안본부 뒷문 건너편에 있는 다방에 김용성, 고병천, 김국련 등 낮익은 2계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김용성은 영전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인삿말 가운데는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 있었다. 중령진급과 동시에 김용성은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시의 무슨 과장으로 가는 듯했다. 「보도한 성과에 대한 대상(代償)」임이 분명했다.

이덕룡의 용건은, 나의 특별채용에 관해서였다. 많은 서류를 넘겨준다. 나의 마음은 무거움과 기묘한 감개로 사로잡혔다.

서류봉투를 가지고 돌아와서 말없이 아내에게 보였다. 그날밤 나는 탁주를 사다 놓고 혼자 마셔 봤다.

“보아 주지 ——.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권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서 만들고 있는가. 여보, 도망갈 길은 없어. 그렇다면 이 현실을 똑똑히 보아 주는 것으로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

아내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좋고 안좋고에 관계없이, 나는 빨리 기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활용이라는 명목에 의해, 내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특별채용되는 곤경엔 처했지만, 나는 나대로 이 일에 대해서

뭔가의 의의를 부여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생각한 끝에 붙인 이유가 「산 증인」으로서 이 나라의 뒷구멍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음모를 목격하겠다는 것이었다.

C씨(순전한 무역상으로서 친척 중에 조총련계가 있음)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스파이」가 되고, 박박씨의 숙부와 같은 본국의 선량한 가장이 허위의 조작에 의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유리되는가, 무엇보다도 서성수형과 나를 포함한 많은 재일동포가 분단의 희생자로서 그 제단에 어떻게 바쳐지고 있는가를 내 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역사가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때문에, 나는 지금 뻗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나 자신에게 사명이라는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었다. 사면초가 상태인 나로서는, 상황에 짓밟혀서 패배를 일생동안 겪어지고 살든가, 그렇잖으면 주어진 상황을 거꾸로 이용해 굴욕을 인내로서 참은 뒤에, 재일동포와 민족전체의 적—한국 국군보안사령부와, 그 원흉인 군사독재에게 통한의 일격을 가하는, 그날이 찾아올 것을 호시탐탐 기다리느냐 하는 선택만이 있었다.

나는 고병천이 말한 것과 같이 생명을 죽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어차피 한 번은 죽었던 생명, 국가를 위해 바쳐”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심산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명을 내던진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이 민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군사독재에 대한 협력은 아니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저들이야말로 틀림없는 민족의 적이요, 역적이었다.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바르다고 한다면, 그 말을 나에게 한 권력에 대해서야말로 나는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로운 수사분실

그 해도 사흘밖에 남지 않은 날, 이덕룡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다.

“통역을 해 줘. 큰 사건이 있어. 이것은 과장과 그 뒷사람이 직접 전한 말이다. 내일 아침, 여섯시 반에 사령부 뒷문에서 기다려 줘.”

광화문에서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 방면으로 보면 경복궁과 나란히 국립박

물관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 집 흰 건물이 있다. 거기가 한국 국군보안사령부라는 곳이다. 그렇게 듣고 보니 박물관 건너편 병원에는 언제 보아도 환자나 찾아오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상한 병원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간판이 걸려 있는 정문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간판은 물론 위장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국군보안사령부의 정문 앞에 도착했다. 아침 6시인데도, 마침 검은 세단차가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위병은 온 힘을 쏟아 소리를 지르며 차가 지나는 동안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다. 위병의 말을 좀처럼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여러번 듣고 있는 동안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떨고 있는 동안에도 검은 세단이 몇 대나 통과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나를 부르는 이덕룡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병진, 왜 그런 데에서 뻗치고 서있어? 추운데 면회실로 들어가지.”

이덕룡과 나는 포드의 검은 세단차를 탔다.

“대체 어디로 갑니까?”

“아, 너는 몰랐군. 분실을 옮겼어. 성남시 쪽으로.”

L군의 진술서

나는 이덕룡에게 안내되어 2층에 올라갔다. 소장실에는 고병천 이하, 2계의 수사관 멤버가 과장인 우종일을 둘러싸고 뭔가 심각하게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고병천은 나의 얼굴을 보자, 한 통의 진술서를 읽어 보라면서 눈에 익은 육군양식의 조서용지 묶음을 넘겨 준다.

“김병진, 너를 부른 것은 처장의 지시다. 지금 스파이를 하나 여기에 데리고 왔어. 너의 일은 이 진술서를 읽고, 그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우종일 과장의 말이다. 이 사람들에게겐, 거짓이든 아니든 「스파이」라면 그것으로 되지 않는가.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왜 나에게 판단하라는 것일까?

고병천은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2층 응접실같은 방으로 나를 데리

고 갔다. 그리고 우선 진술서를 읽으라고 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역시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이었다. 와세다대학 2부에 다닌 L군으로서, 한국의 대구에 있는 의과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다. 내가 관여했던 한학동은 아니고 한청(韓靑—재일한국청년동맹)과의 관계가 진술서 첫부분에 씌어져 있었다. 한청 학습회 따위에 참가했었는데, 그 학습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김모씨, 이모씨」에 의한 권유라는 것뿐, L군은 그 사람들의 확실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결국 L군은 한청의 핵심멤버는 아니었다.

그런데 진술서의 전개는, 그 김모씨 이모씨가 북의 공작원으로서, 그들의 권유에 의해 입북했고, 드디어 군사훈련까지 받았다고 묘사되어 있었다. 나는 긴 그 진술서를 단숨에 읽고 당황했다. 너무나도 황당무계하지만, 그래도 군사훈련의 모습이나 북에서의 밀봉교육의 내용이 속속들이 표현되어 있었다. 진위를 판단하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에서의 생활이 이 진술의 핵심인 것같은데, 나는 북에 간 일이 없기 때문에, 줄거리로 보면 통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거짓인지 참인지 식별해낼 도리가 없다.

고병천이 나에게 물었다.

“어때, 네 감상은?”

선불리 본심을 말해서는 안된다. 나는 잠시 당황했다.

“북에서의 활동이 굉장하군요, 군사훈련까지 받고. 하지만 나는 북에 간 일이 없으니까, 어떤 것인가요.”

“아니, 그건 좋아. 일본 내 활동은 이해가 되나?”

“글쎄, 어떨까요. 자기를 「북」에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한청이라는 공공연한 조직의 간부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나는 그 이상의 말을 기피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내가 일부터 불러 나오게 된 사실의 의미조차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L군은 훌륭한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말이 약간 서툴다 하더라도 세삼 통역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뽑혔을까?

비원의 희생자 L군

일의 시초는 1002보안부대 대공과에서 다듬어진 「근원발굴계획」에 의해 서였다. 1002보안부대라는 것은 국군보안사령부의 전국에 뿌려 놓은 예하 부대의 하나로서 대구와 경북을 그 관할지역으로 한다. 이 지역은 제2군단이 관할군으로 되어 있다. 그 대공과는 사령부의 수사과와 공작과의 2중지휘체제로 짜여져 있다. 1983년 소위 「3대망 스파이단사건」때는, 김상숙(金相叔)이라는 경북 칠곡군 출신의 페인트장사가 일본을 왕래했을 때 조총련에 소속한 숙부와 접촉했던 사실을 눈치채고 「스파이」로 만들었는데, 이 작업은 일관해서 수사과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었다. L군의 경우는 공작과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L군은 2개월 동안, 대구에서 취조를 받았다. 공작과는 「간첩검거보고」를 했고, 사령부는 그 보고를 받아 「대통령보고」를 마쳤다. 즉, 전두환을 향해 “스파이를 잡았습니다”라고 이미 진언을 마쳤던 것이다. L군에 대한 본격적인 송검작업을 하기 위해, L군의 신병을 서울로 보냈다. 최경조(崔景朝) 대공처장은 장기구속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송검작업을 이에 익숙한 수사과에 명령했다. 수사과에서 L군을 담당한 것은 수사3계 박성준(朴晟峻) 소령을 계장으로 하는 멤버였다. 박계장은 처장의 명령에 따라 자기에게는 아무런 공적도 돌아오지 않는 일을 투덜투덜 해야만 했다.

우선 김석호(金錫浩) 공군상사를 담당수사관으로 임명하고, 공작과의 손에 의해서 대충 만들어진 조서를 보면서 L군에게 진술서의 작성을 명령했다. 며칠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신정까지는 작업을 끝내고 싶다고 김석호는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좀 놀랐다. 대강 진술서를 끝낸 것 같아서, 최후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임에 틀림 없습니다’라고 쓰고 서명 날인하라고 했더니, L자식, 그럴수가! ‘이상에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써버렸다.”

이 L군의 저항이, 수사과와 공작과의 암투와도 얽혀, 점점 일이 크게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수사과가 L군을 손대고 있었다면, 이 종류의 저항은 폭력에 의해 막아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종일 수사과장과 최 공작과장은

진급경쟁까지 얽혀 있었다. 보고를 받은 우종일 과장은 결코 자기의 선에서 얼버무리지 않았다. 이 몇년 동안, 「성과」다운 것을 올리지 못해 대령진급 대상자이면서도 몇년간이나 보류당해 온 최과장으로서, L군이라는 성과가 그야말로 비원을 달성시켜 주는 구세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과는 우과장에 있어서는 자기의 진급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천만의 일이기도 했다.

수사과는 최경조 처장에게 L군의 검거는 수사미스였다는 보고를 냈다. 공작과는 이 보고에 격노했다. 처장실에서 양과의 실무수사관들이 격돌했다. 그 광경에 더 화를 낸 것은, 장군심사를 앞에 둔 최경조 대공처장이었다. 성과는 욕심나지만 대공처 내의 내분은 자기의 감독책임을 물을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경조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 수사과2계에 재조사를 명령한 것이다. 그는 모든 각도에서의 검토를 요구하고, 특별채용을 내정하고 있는 일본통인 나에게 성패를 걸게 되었다.

L군의 재조사에는, 20년 전에 한국 국군보안사령부의 전신인 방첩부대에 검거된 후, 운 좋게 처벌을 면제받아, 현재는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 연구실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항구(李恒九)라는 인물이 L군과 대면해서 「입북사실」을 확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항구씨 역시 처세술에 능한 사람으로, 결론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본시 서울출신이지만 밀바탕이 코뮤니스트였던 모양으로, 전쟁 중에는 북쪽으로 도망가서 모스크바대학까지 유학한 지식인이었다. 일상시는 보안사령부의 대공처 연구실장이라는 직책을 감추고, 대공전문가라는 사전선전으로 TV의 좌담회 등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람을 보냈어도 사건의 진위에 확신을 갖지 못한 최처장은, 나로 하여금 일본에서의 행동을 판단시키려고 했던 모양이다.

나는 보안사령부의 그런 내부 사정도 모른 채, 고병천의 지시에 의해 L군과의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의 준비를 위해 고병천에 의해 안내된 장소가 기계실이였다. 나는 놀랐다. 그 안에는 방도 좁을새라 일본제 모니터 TV가 수십 대 줄지어 있었고, 그 중의 하나에 예의 수의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비춰졌다.

“어쩌면,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얼굴을 잘 봐.”

그렇게 말하고 TV 앞의 작은 레바를 작동시켜서, 그 청년의 얼굴이 크로즈업되도록 화면을 조절해 보였다. 청년의 숨소리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마이크의 볼륨은 대단히 크게 들렸다. 다행히 L군의 얼굴도 소리도 기억에 없었다.

“나와 최홍상씨가 한 번 들어가서 보았는데, 우리들은 기관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L군을 속였다. 그리고 겁내지 말고 사실만을 말하라고 당부했다.”

고병천의 말이였다. 하지만, 모니터에 비춰진 L군의 모습에서 안도의 빛은 엿볼 수 없었다. 감시병에게 시선을 주기도 하면서 방안을 바쁘게 돌아보고 있었다.

“너의 역할은, 네 자신이 스파이로서 검거되었지만 이와같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 두려워 말고 사실을 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는 고병천과 최홍상을 따라 신축한 심사실로 들어갔다.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이전의 C씨와는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에 관계되는 작업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C씨의 경우는 통역에 철저히 하지만 하면, 그 사람의 운명에 아무런 장애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비하면 훨씬 기분이 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은가.

날조 과정

나는 두 사람의 수사관을 따라 방에 들어갔다. L군은 수사관의 모습을 보자 긴장했다. 고병천 등은 애써 부드러운 태도를 지으려고 했다.

“어때, 밥은 먹고 있나?”

최홍상은, 말 하나 하나가 역시 다른자들보다는 부드러웠다. 본시 성격이 온순한 탓이겠지. L군은 “조금 먹었습니다”라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대답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다. 너와 같은 제일동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 신문을 잘 보는 거다.”

고병천은 서류뭉치 속에서 예의 「스파이보도」신문을 꺼내서 L군 앞에 던졌다.

“이 사람은 스파이로서 검거되었다. 하지만, 당국의 배려에 의해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L, 너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말하면 안전은 보장해 준다. 우리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산 증인을 데리고 왔다. 뭣하면 우리들은 자리를 뜨지. 같은 재일동포끼리 이야기해도 좋아. 감시병도 붙이지 않아. 누구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없으니깐 안심하고 이야기해도 좋다. 물론, 일본어가 의사소통이 잘 되겠지. 오래간만에 일본의 이야기도 해보면 어때. L, 어떻게 해. 이야기해 볼래?”

L군은 고병천의 제안에 동의했다. 고병천 등은 당초의 계획이 지장없이 진행된 데 대해 만족해 하면서, 감시병과 함께 방을 나갔다. L군의 모습은 수개월 전까지의 나의 모습이고, 그 마음은 나에게 아플 정도로 전해 왔다. 고병천은 「자유로운 대화」를 보장한다면서 나갔지만, 기계실에서 자기들의 계획을 나에게 은밀히 전하면서, L군과의 대화는 기계실과 처장실에서 수사관 모두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본어를 이해하는 장병화도 있다. 고병천은 L군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조바심하고 있는 L군에 향해서,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언제까지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다. 천정의 네 귀통이에 부착된 작은 거울 하나가 ‘매직미러’다. 그 거울 너머로 있는 TV 카메라가 L군과 나를 교차로 찍어서, 어디에 걸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마이크가 그 불륜 가득히 우리들의 회화를 수사관들에게 전하고 있을 것이다.

“자네의 진술서를 좀 보았어.”

겨우 나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런데 L군은 나의 말은 무시하고, “당신은 참으로 스파이로서 잡혔습니까? 이 신문 사진은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까?”라고 말을 꺼냈다. L군은 이 신문이 발행된 날에는 대구에서 알몸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극히 최근에 재일동포가 스파이로서 검거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금시초문인 것이다.

“그 신문은 진짜 신문이야.”

“그럼, 당신도 나와 같은 처지를 당했겠군요. 부탁드립니다. 가르쳐 주세요. 왜 나는 이와같은 곤경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것으로 벌써 3개월째군요. 억지로 데려와 가지고는, 이게 뭘니까? 사람을 스파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끝에 전신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전기고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하는 말에 그렇다고 한 번 말해 보면, 그 다음은 언제 포섭되었는가라고 말하면서, 또 폭력, 폭력, 폭력이었어요. 알겠어요? 나는 포섭이라는 한국말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스파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배! 선배도 나와 같이 지독하게 당했다면 가르쳐 주세요. 거짓말이라도 그들이 하는 말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나는 구조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선배라고 부르면서, L군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갔다. 나는 방안을 훑어 보고 있는 수사관들에 신경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L군의 박력 앞에서 말을 잃어 버렸다. L군은 처음으로 심정을 토로해도 좋을 인간을 만난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L군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았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이것뿐이다.”

가까스로 입에서 튀어나온 내 말은, 아마 L군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L군은, 내가 이 상황에서 L군의 힘이 되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자기의 말을 계속했다.

“선배,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에 갔다는 것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군사훈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는 걸요.”

그렇다. 대충 본 L군의 「진술서」 속에서 내가 의문을 가진 것도 바로 그점이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자. 너의 진술서를 읽어 보았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 그 너의 진술서에 의하면 복에 간 경로와 복에서의 생활, 그런 것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써어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네가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권총의 분해와 조립까지의 초보적 기술을 수사관들에게 실지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야?”

L군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보다도 강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그 말투는, 모든 것을 건 필사의 변론이었다. 그칠줄 모르고 계속된 L군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아연실색했다. 날조라도 2계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L군의 이야기는 이리했다.

하나의 타협이, 연이어 독을 터뜨린 것같이 새로운 타협을 낳아 갔다. 그 수법은 소위 유독심문이었다. 일본에서의 행동은 이때 하찮게 처리한다고 해도, 소위 입북 이후의 이야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갔다, 안갔다'고 하는 폭력과 회유의 주고받기 끝에 L군이 실제로는 간 일이 없지만, '갔다'는 걸로 타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갔는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L군으로서는 예상조차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공작과의 염소령은 "보통의 경우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 해안에 고무보트가 와서 사람을 태운 후, 모선이 난바다(神)에 대기하고 있어 그것을 타고 가지만, 네 경우는 어떻게 했어?" "북으로 가는 데는 대개 이 정도의 거리가 되고, 공작선은 한 시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는데, 너의 경우는 몇 시간 정도 걸렸지?" 라는 식으로 물었다고 한다.

L군은 염소령의 말을 듣고 산술계산을 했다고 한다.

"평양에 가면 천리마 동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높이가 이 정도인데 보지 못했어?" "평양에는 주체탑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이 정도라는데 보지 못했나?"

만사가 그런 식이었다고 L군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내가 읽고, 이상하게 생각한 입북의 구체성의 정체는 이것이었다. 공작과의 염소령은, 이렇게 해서 조작을 성취하려고 했다. 수사분실에서 슬쩍 본, 그 염소령이라는 자의 집념은 그 태도로서 미루어 보건대, 이제는 광기의 경지에 도달한 것같았다.

L군은 계속해서 말했다. 군사훈련 운운할 때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수사관(염소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와서 분해하라고 했다. 물론 L군은 일본에서 모델권총 정도는 다루었다고 했는데, 진짜 물건을 만져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을수록, "앞쪽을 돌려보는 것이 아닌가?"고 암시를 주는 것이었다. 총구에 손을 댄즉 거기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L군은 총신과 하나의 관을 떼어 내는 데 성공하고, 그 뒤에도 암시에 의해 마지막까지 분해했었다. 수사관은 손을 내밀지 않았었다. L군의 두 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L군은 말을 계속했다. 조립은 분해의 반대를 했더니 되었다. 제 혼자 힘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염소령은, 마지막까지 L군 혼자 힘으로 했다고

휴게실에서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L군의 주장을 강경하게 부정하면서도, "옛날 일이라 L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마리만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 것은 L군이 나에게 말한 주장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L군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의학에 뜻을 세우고 모국에 온만큼 오로지 공부에만 힘써 왔다. 그들은 거듭 악질이라고 평하고 있었지만, 나의 L군에 대한 인상은 아주 성실해 보였다. 악질이라는 평가는 그대로 보안사령부에 돌려져야 한다.

나는 L군의 방에 계속 있는 것이 겁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L군은 나에게서 뭔가의 구원의 손길이 뻗어 나올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다. 나는 L군의 독백에 떨고, 자신의 무력을 탄탄할 뿐으로, 일각이라도 빨리 심사실에서 도망쳐 나가고 싶었다.

"가르쳐 주세요, 선배!" 라는 말이 내 마음을 점점, 그리고 어쩔 도리도 없이 괴롭혔다. 힘이 빠진 전신을, 쭈그러든 지푸라기를 뺏뺏이 세우듯이 힘을 냈지만, L군의 질문에는, "최후까지 진실을 말하는 거다"라고 가냘프게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L군의 마음이 또 마음 아프게 전해져 왔다. 그것이 한층 더 나를 괴롭게 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또 지독한 고문을 당하는 걸요, 선배?"

몇 번이나 되풀이한 "사실만을 말해"라는 말을 마지막에 또 한 번 말하고 나는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내 그림자를 잡아당기는 것같은 L군의 눈매가 가슴아팠다.

나는 방을 나오면서, L군은 조작에 의해서 형무소에 보내진다고 생각했다. 서류는 모두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들(수사관)이 뒷걸음 친다는 것은, 내 경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

기묘한 회의

한국 국군보안사령부 3층 308호실로부터 비스듬히 위치한 건너편 방.

"고 준위, 뭘 꾸물거리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 김병진은 누구지?"

처장의 비서라고 생각되는 남자(대공처 기획반장, 유소령)가, 온화했지만 고병천 등을 경시하는 말투로 맞아들었다. 나는 등을 떠밀리면서 안쪽 방으

로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다. 큰 책상이 있고 벽에는 전두환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대공처장 대령 최경조」라는, 큰 글자의 명패가 우뚝하게 놓여 있었다. 그 앞의 쇼파에 열 사람 가량이 앉아있고 그 둘레에는 또 20명쯤이 앉아있었다.

“처장, 이쪽이 김병진입니다.”

쇼파에 겸손하게 앉아 있던 우과장이, 중앙에 혼자 앉아 있는 40대의 남자에게 나의 도착을 알렸다. 남자는 내 얼굴을 슬쩍 보고 개의치 않은 모습으로 중단된 이야기를 계속했다.

L군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수사과장의 옆에 있는 것이 공작과장인듯, 어딘지 맥빠진 표정으로 멍하게 있었다. 처장이라는 자는 생각 밖에도 몸집이 작는데, 체격에 맞지 않게 높은 음성의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격노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공작과의 주장을 인정해서 L군을 법정에서 보내느냐 안보내느냐였다. 최경조는 발을 굴렀다.

“김이전(金利田), 자네 생각은 어때?”

지명을 받아 나직나직 이야기하는 사람은 머리가 벗겨진 키가 작은 노인이었다. 너무나 가는 목소리지만, 말하려고 하는 것은 L군의 입북부분이 상당히 무리라는 내용이었다. 이 노인은 수사과의 사람이다.

그러자,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키가 큰 다른 노인이었다. 노기등등한 얼굴은 험악했다. 단번에 수사과 노인의 멱살을 휘어잡을 듯한 기세였다. 김이전이라는 노인은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언쟁에 중개자로 나선 것이 쇼파에 앉아 있던 젊은 장교였다. 그 장교는 L군의 제조사라는 고맙지 않은 두통거리를 맡은 수사3계장 박성준으로서, 김노인은 그 계장의 부하이다.

장교의 등장으로 해서 노인들의 싸움은 어쨌든 가라앉았다. 최경조는 저 혼자서 독설을 휘둘렀다. 이것저것으로 부하들을 욕한 다음, “사령관님에게 뭐라고 변명할 작정인가. 각하에게 보고를 올린 뒤인 만큼 면목이 없잖아! 이것으로 L을 심사한 인간은 전부 한마디씩 지껄었군. 결국 북쪽에 갔었나, 안갔었나? 어느쪽이야, 김병진. 네가 L을 만나서 받은 인상은 어때?”

이 남자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담배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지만, 아까부터의 이상한 분위기에 눌려, 나는 뭔가를 말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뒤에 있는 고병천과 장병화가 내 등을 쿡쿡 찌르면서 말하라고 졸랐다. ‘곤란해, 뭘 말하면 좋을까?’

“내가 만나서 말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일본에서 한청 등의 조직과 접촉은 있었던 듯한데, 진술의 진위까지는…….”

최경조는 내 말을 알아 듣지 못한 듯했다. 옆에 있는 우과장에게 뭐라고 물었다.

“김병진, 잘 들어! 너는 국가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은혜에 충분히 응답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선배인 서성수가 형무소에 간 것을 생각하면, 너는 생명을 죽은 것과 같다. 나도 될 수 있는 데까지 해주겠다. 너의 계급을 5급(서기관보)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인사처에서 네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문관의 6급(주사)이라도 대단한 우대다. 너를 조사한 수사관도 7급(주사보)이니깐. 정성을 다해봐. 알았지?”

그렇게 말하고, 잠시의 침묵이 흐른 다음, 최경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L의 송검서류 중, 입북 부분은 빼어 버려. 그리고 처치의견은 공소보류로 해.”

그 한 마디로 기묘한 회의는 끝났다. L군에게 스파이라는 전과를 씌우고 여러 사람의 체면을 세우는 것은 공소보류였다.

1984년

국군 제7599부대 3처 2과

1984년 1월 4일, 나의 29회째의 생일날,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 근무원계의 이 주사보의 말대로 나는 김정구두에 광을 내고 머리를 다듬은 다음, 「방문객」을 의미하는 빨강 표찰을 왼쪽 가슴 포켓에 넣었다. 오전 6시 반, 아직 채 밝지 않은 소격동 134번지, 사서함 1599, 국군서울지구병원이라는 위장 간판이 걸린 통상명칭 국군 제7599부대, 고유명칭 국군보안사령부 앞에 택시로 달려갔다.

후문의 위병은, 이전과 같이 두꺼운 군용잠바와 방한장갑,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었다. 장갑을 꺼서 부자유스럽게 보이는 손으로 재치있게 M16을 앞으로 위로 꼬면서 문을 통과하는 승용차를 향해 「충성」이라는 구령을 전신의 힘으로 되풀이하고 있었다.

나는 인사처 근무원계의 사무소로 들어갔다.

“머리가 좀 긴 듯한데, 괜찮겠지요?”

이주사는 그렇게 말하고, 책상 위에서 곤색 서류철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넘겨준다.

“연습해 주세요. 신고문의 내용입니다. 《신고합니다. 나, 김병진은 1984년 1월 4일부터, 국군보안사령부 6급군무원 임용과 동시에 대공처 수사과 수사관으로서 보직의 명을 받았읍니다. 여기에 신고하는 바입니다. 1984년 1월 4일, 김병진. 충성》”

나의 이 입관신고는 동시에 김용성의 영달도 의미하고 있었다. 김용성으로 본다면 겨우 도달된 중령진급이었다. 고향인 전주 제510보안부대의 대공과장으로서의 영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 나는 한국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박준병(朴俊炳)에 의해 「조사정보 근무주사」라는 관직에 임

용되었다. 박준병이라는 남자는 1980년 광주사태때, 소위 「폭도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여단——유사시에 적의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 전력, 한국군이 자랑하는 검은 베레모의 여단장으로서, 광주시민 대학살의 실행지도관으로서 활약했고, 그 때문에 전두환의 신임이 두터운, 군사정권의 숨은 실력자이다. 박준병은 또 여당 민정당의 대표자 전두환의 후계자로서 지목되고 있는 노태우 다음에, 전두환의 뒤를 받아 보안사령관이 된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들의 지시에 대한 저항이 모두 「항명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일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발이라도 당기든지 한다면 「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반국가적 행위」로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신분상의 족쇄를 차게 된 것이다.

신사협정

참모장이라는 원·스타(준장)가 나의 「신고」를 받았다.

3층 308호실 문을 조심조심 열었더니, 맞은편에 좋은 책상과 의자를 쓰고 있는 남자(오세인(吳世仁) 육군소령)가, 즉석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 김병진씨, 벌써 신고는 끝났습니까?”

이 남자가, 이 방에서 제일 내노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이 남자 앞으로 걸어갔다. 미스 정, 미스 성, 이종국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자, 힘껏 해봐! 자네의 배속은 아직 잠정적인데, 외근도 나가게 되겠지. 내 오른쪽이 「사건반」, 왼쪽이 「첩보분석반」, 앞이 「행정반」이야. 당분간 각 반을 돌며 일을 익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오세인은 행정반에 앉아 있는 신사복차림의 남자를 불렀다.

“정지용(鄭芝容) 상사, 행정반에서 김병진씨의 교육계획을 만들어 줘. 내 근뿐 아니라 외근도 방문교육이 되도록 계획하고.”

일주일 동안 나는 내근사무소에 출근해서 견습했다. 그 후 6일간 외근계인 2계, 3계, 5계 사무소에서도 일을 했다.

테니스공작

3계장 박성준 소령은, 외부활동의 연수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나와 동년배인 유영희(柳英熙) 주사보에게 나를 맡겨버렸다. 나는 유주사보를 따라 가락동 주공아파트로 대공정보수집을 나갔다. 대상은, 돈을 거칠게 마구 쓰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일본을 빈번히 왕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밀수꾼임이 판명되자 유주사보는 치안본부로 넘기는 것이었다.

3계에서 나를 밖으로 보낸 의도는, 그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연서계획」을, 정체불명의 김병진이라는 「검거스파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다. 「연서」라는 것은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계획명인데, 즉 이 두 대학에 다니는 모국 유학생 가운데서 스파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다. 나는 휴학 중이었지만, 내 자신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3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무소에서 나를 「교육」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다.

당시, 3계에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생으로 있던 허철중(許哲中)이라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서계획」에서 더 나아간 「공작」을 전개하고 있었다.

허철중씨와 나는 다행히 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3계는 허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욕심을 냈고, 나에게까지 “같은 학교가 아닌가?”고 물어 왔다. 「공작대상자」인 이상, 허씨가 물품(스파이로 된 인간을 말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2차적인 일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내가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은 탄로난다. 내가 정말로 허씨를 모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나, 이것은 3계로서는 기대밖이었던 듯하다.

허철중씨는 일본에서 조총련의 학교를 나왔었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과거는 묻지 않는다」라는 본국정부의 선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죄를 물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허씨가, 1975년경부터 보안사 육군 준위 출신으로, 뒤에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진출해서 정보영사로서 주 대판 총영사관에 있었던 조일제(趙一濟 - 사꾸라 야당 국민당소속 국회의원)가 저지른 조총련 와해공작에 편승된 가정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

다.

3계가 허철중씨에게 눈을 돌린 것은 그들의 말로 하면 「교양사항」—— 즉, 북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지도원」을 붙여 두면 모든 것이 해소되는 「아주 간단한」 대상인 점이다. 허철중씨는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본국 정부의 말에 안심하고 있었을 터이었다. 그러나 이 안심이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허철중씨에 대한 공작명은 그의 취미에 따라 「테니스공작」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었다.

「원폭공작」

3계의 박성준 소령과 김석호 공군상사는 날조에 대한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 김석호의 입버릇이라는 것을 내가 안 것은, 이해 가을 나 자신의 지인이기도 한 아마자끼(尼崎)시 출신의 조신치(趙伸治)군을 그 고교시대의 환경만에 의거해서 조작하던 시기였다. 계장 김상린(金相麟)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제3사관학교출신 장교였다. 내가 느낀 바로는 김상린은 전혀 상부에서 일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들 3계는 하나의 공작을 전개하고 있었다. 「원폭공작」이었다. 대상자는 제일동포 조일지(趙一之)군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이었다. 조군의 출신지인 히로시마에 관련지어 붙인 공작명이 「원폭」이다. 나는 조군과 전혀 면식이 없었다.

3계의 신동기(申東基)라는, 보안사 명물인 이 남자가 거둬들인 정보에 의해 이 대상자는 공작에 전환되어 있었다. 신동기는 수사관으로서 무능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卍에서 춤이나 추고 프로그수를 자처하는 연에게 뒷골목의 보스였다. 자기사업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려고 고용한 가정교사 제일동포학생을 통보자로 활용해서 얻어내 들은 이야기였다. 일의 발단은 조일지군이 성균관대학교 제일동포 유학생들의 술자리에서 「북의 발전량이 남쪽의 두 배는 된다」라고 지껓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조일지군을 고무찬양죄로 국가보안법에 걸 수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파이였다. 제일동포 모국유학생이라는 침이 나오는 「물건」을 단순정보사범으로 끝내지는 않는다. 아무렇게 해도 스파이가 되는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대상은

물건으로 못 만들면, 그야말로 수사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조일지군은 일본에서 경도산업대학을 졸업한 후 모국으로 유학하게 되었는데, 고교 졸업 후의 긴 시간은 「요리」여하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만들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재일동포학생 한 사람을 망원으로 포섭하고, 조일지군이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돈까지 주어서 조군의 집을 방문시켰다. 망원의 임무는 조군의 가정, 그것도 조군의 방에 들어가서 책장이나 기타 소지품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신동기에 의해 조종된 망원인 젊은 학생은 조군의 방에서 한편의 책을 보았다. 이 학생의 보고에 의하면 “표지에 김일성의 얼굴이 크거나 있고, 제목은 「주체의 나라 조선」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다.

조군의 일본집에 망원을 침투시켜서 얻은 성과는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3계로서는 이 성과는 기뻐서 미칠 만한 것이었다. 김상린은, 그리고 3계는 이제 조일지군을 스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기까지 상황이 갖춰지면 조가 「북」과 연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렇지 않아?”

나는 김상린의 말이 재일동포의 상황에 대한 물이해에서 출발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망원이 보았다고 하는 책은, 아마 10년쯤 전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사가 출판한 책이에요. 그 때는 민단이 선전공세로 요미우리신문사에 항의해서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 책은 일본에서는 보통 책방에서 팔고 있던 것으로 북과의 관계를 그 책 한 권만으로 운운할 수가 있을지 어떨지요.”

김상린의 잘못된 추측에 대하여 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다.

“그 점, 북의 발전량 운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조군의 고교시대——나와 그다지 다른없는 세대인 조군이 그 시대는 고교의 교사들이 조선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한 교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껄인 것을 조군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막연히 유추했다.

그렇더라도 나에게 의문으로 남는 것은, 북의 발전량이 남쪽의 두 배인가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조군이 술자리에서 농담을 섞어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흘렸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김상린과 같이 파고들

어 논쟁을 벌일 입장에 나는 서 있지 않았다.

서형과의 재회

1980년 5·17조치 당시, 김종필 전총리의 부정축재 조사와 관련해서, 보안사령부가 몇백억 원의 자산이 되는 「서울화물터미널」을 어떤 인간에게 뚫았으므로 불하해버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이 좀 잠잠해지자, 그 화물터미널의 원래 주인이 보안사령부의 감언과 협박에 의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청와대에 진정해버렸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이다. 보안사령부는 당황했다. 제소한 측의 이야기대로라면, 한국 국군보안사령부의 사기를 말하는 것이요, 불하에 얽혀 보안사령부의 사람들이 뇌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우기 전두환집권의 이면공작에도 이러한 돈이 유용되었다는 것이다.

김성구(金成龜) 준위가 분주히 돌아다닌 것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라는 사령관의 특명 때문이었다.

어느날, 할 이야기가 있으니 2계의 사무소까지 오라는 고병천의 전화가 있었다. 가본즉, 진술서를 하나 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종수라는 사람을 몰라?”

나는 마음에 쏙이는 데가 없었다.

“이전 우리들이 붙잡은 스파이다. 경도의 한학동 출신이다. 네 후배에 해당 터인데?”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몇년 전에 일본에 돌아갔을 때, 경도의 한학동 출신자가 한국에서 검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재판 중인데, 네가 할 일은 검사측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일이다. 뭐 어려운 것은 없어. 네가 한학동에 있어서 서성수에게 포섭되었다고 말하면 돼.”

곤란하게 됐다. 면식이 없다고 했는데도, 한학동의 후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네가 지금 보안사령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은 덮어 줘. 어디까지나 재일동포유학생으로서 증언하는 거다. 서성수도 증언대에 선다.”

무서운 일을 꾸며냈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도 서성수형도 그들에게 있어

서는 도구인 것이다. 재판을 앞둔 서성수형에 있어서 보안사령부의 요구는 곧 검사의 요구로서 출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로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그 이종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무엇을 떠벌이면 좋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어. 법정에서 서성수가 너를 포섭하고 내가 포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판사에게 알리면 돼!”

고병천의 임기응변은, 이군의 재판에서 변호사측이 애써 한학동은 북쪽과의 관련성이 없는 단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 서성수라는 인간은 한학동 지방본부의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도 북쪽의 노선에 동조해서, 김병진이라는 후배를 포섭하고 있었다고 하는 「논리」를 짜냈던 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서성수형과 나 자신에게 증언시킴으로써 재판의 흐름을 검사측과 보안사령부측에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책략이었다. 우종일 과장의 지시에 의해 2계의 고병천 등과 함께 나는 어느날 서울지방법원에 나갔다. 그들의 제지에 의해 나는 증인대기실이라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서성수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고병천이 말했다.

“뭘 깊이 생각할 것은 없어. 검사가 질문하면 ‘그렇습니다’라고만 대답하면 돼. 구체적인 것은 질문 중에 검사가 말하게 되어 있어. 너는 다만 ‘예’라고만 대답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제일동포를 위해, 검사측의 증인으로서 내가 출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얼마쯤 지나서 양일근(楊一근-이 노인도 김성구 준위와 마찬가지로 내근이었는데, 아침에는 사건만 자기 책상에 얼굴을 내민 후 검찰대상교섭관으로서 곧 검찰청이나 재판소를 어물어물하는 일로 나갔다) 준위가 나의 차례를 알려왔다.

개정이 선고되어 미결수의 흰 한복차림의 피고가 묶인 채 나왔다. 그가 이종식군이였다. 안면이 없는 이 후배의 얼굴은 창백했다. 야위고 키가 큰 청년이었다.

판사는 서성수형의 출정을 지시했다. 서성수형은 묶인 채 증인석에 나타났다.

검사는 증인신문이라면서 혼자만으로 지껄이고, 줄거리에 대해서 ‘예’하는 대답만 요구하고 있었다. 내용은, 서성수형이 한학동의 간부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북」에 갔고, 김병진이라는 후배를 포섭해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새삼스레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보안사령부가 만든 이야기 그대로였다.

서형의 증언이 끝났다. 이번에는 김병진이 증인대에 서라고 판사가 말했다. 그 자리를 떠나려는 서형과 옷이 스치는 순간 서형에게 말을 걸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서형은 내 눈을 보지 않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서형 나름의 자책까지도 느끼는 순간, 서형은 손목의 포승줄에 이끌리면서 입을 열었다.

“건강하고, 용기를 내라!”

이것이 서성수형과의 수년만의, 그리고 현재까지에 있어서 최후의 대화가 되었다.

1984년 2월경, 3계는 「테니스공작」을 종결했다. 그 후 허철중군은 기소되어 일심에서 징역 8년의 판결을 받았다. 김이전이 말했다.

“저 높은 판결이 내렸을 때 춤을 추고 있었다. 자기는 20년 이상의 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던 거야. 이쪽도 형을 가볍게 해주려고 애썼거든.”

제일동포 허철중은 본국정부에 기만당했던 것이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이었다.

봄이 찾아왔다.

최경조 대공처장이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5·16민족상」 안보부문의 수상을 목표로 심사회에 제출할 자기의 업적목록 작성을 수사과 내근에 명령했다. 최경조가 잡은 스파이가 6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책자가 만들어졌다. 그 속에는 나의 이름도, 서성수형, 박박씨, 허철중군의 이름도, 사진을 곁들여 포함되어 있었다.

최경조의 「5·16민족상」 수상축하회로 이 해의 봄은 끝났다. 보안교육대에서 거행된 대공처의 축하연회서, 수사과의 분실장 김관호(金官浩) 공군대

위의 처장실 부속 기획반장 유 육군소령이 싸움을 해서 그 자리는 싱겁게 끝났다. 마이크를 서로 잡으려던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다. 2백여 명의 대공처 간부와 병졸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산했다.

유학생 사냥

2계의 신임계장 배영룡(裴英龍)은 신년도의 성과 제1호를 3계에 빼앗긴 후(허철중사건을 말함), 신임 오희명(吳熙明) 과장에게 바칠 성과에 집념하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김용성이 눈독을 들인 뒤 남겨주고 간 고려대학교 모국 유학생 T군이었다. T군은 김포공항에서 입국할 때 연행되었다. 내근사무소에 있는데 분실로부터 팩시미리가 「입소자 인적사항」을 전해왔다.

고병천이 분실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용건은?”하고 물은즉 “분실로 나와”라는 것이었다.

장지동 수사분실로 갔다. 고병천은 곧 T군의 조서 요지 — 그들의 용어로는 「시다가끼(下書)」(일본어를 사용) — 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들은 이 놈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 모르겠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인간같지는 않은데, 요령부득이야. 시다가끼를 읽고 한번 T와 면접해 줘”라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그들이 T군을 연행하는 혐의내용은, ① 재일동포 수백 명이 재적하는 대판의 K대학 입학 후, 4년 가까운 공백기간을 둔 뒤의 모국유학. ② 학업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③ 국내여성과 결혼, 아이를 얻으면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할 처지이면서도 전세금 300만 원을 빼냈는데, 그 용도가 불명. ④ 학기중인데도 목적불명의 일본왕래가 빈번 — 하다는 것이었다.

조서의 「시다가끼」에는, 조금도 스파이가 될 만한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2계는 이 조서에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취학기간 중 자기는 계속 열등생이었다고 T군이 공술하면, 「열등생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3백만 원이라는 돈을 도박으로 버렸다는 공술에는 「생후 얼마 안되는 아기를 둔 어른의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상식이 납득을 거부한다. 거기에다 일본으로의 빈번한 왕래역시 그러하다.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으로부터 2계의 그 누구도 빠져 나오지 않았다.

일본어로 비교적 짧게 씌어진 T군의 진술서도 읽어 보았다. 대학시대의 생활태도라는 항목에서 T군은 K대학 입학 후는 한 번도 수업에 나간 일이 없고, 친구와 그저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부분이 있었다. 이 점도 2계의 그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나에게 감상을 물었다. “이 자식은 폭주족(暴走族)이군” — 그렇게 대답한 후, 폭주족이라는 하나의 일본의 풍속을 나는 장광설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하튼, 수사관의 입회하에 면접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공소보류가 된 L군의 때를 생각하면 훨씬 기분이 편안할 뿐 아니라, T군이 어떠한 인간인가를 보자고 하는 호기심마저 솟아나는 것이었다. 김부리기 하나도 걸릴 것 없는 자를 「조작해낸다」는 모험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내 나름의 판단과 마음의 여유조차도 생겼다.

심사실에 들어간즉, 장신의 T군의 안면에 비뚤어져 스친 묘한 줄이 눈에 띄었다. 칼상처는 아닌 듯싶어서 본인에게 물어본즉 「신나놀이의 후유증」이라고 했다.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느냐고 물은즉 「뒷구멍」이라고 말한다. 3백만 원이라는 대금을 카지노로 이름난 워커히에서 날렸다는 말을 듣고서는 인간적인 멸시조차 느껴졌다. 똑같이 처자를 거느린 경우가 나의 처지와도 겹쳐서, 처지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방종한 T군의 생활태도를 나는 수사관으로서 나무랐다. 그런데 T군의 대답은 의외로 후련한 것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합니다.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젊은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첩수사」라는 것이 나에게 아주 웃음거리로 생각되었다. 「서투른 총이라도 자주 쏘면 맞는다」라는 식이었다. 이 사실은 재일동포라면 언제든지 「연행 조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안사령부의 방약무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장없이 유괴된 후에도, 국내인과 일본태생 사이에 가로 놓인 인생관과 사회관의 차이라는 도량이 한층 재일동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같은 재일동포인 나에게 T군과 같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본국의 수사관들에게는 T군과 같은 예는 생활감각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윤리에 관계되는 미묘한 가치관

의 차이가 스파이의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착실한 유학생은 언제라도 간첩이 될 수 있는 간첩예비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2계는 나를 불러낸 시점에서 「안된다」라는 기쁘지 않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나를 불러낸 것은 「안된다」라는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재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수사회의에 동석한 나는 침울한 표정의 수사관들 속에서, 아무리 해도 웃음이 멈춰지지 않았다. 배영룡 2계장이 진지한 눈매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웃어서는 안될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실을 방문한 오희명 과장에게, 배영룡 소령은 미안하다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는데 적과의 연계를 찾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병진도 일본에서의 상황이 납득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방하려고 생각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오희명 과장은 가볍게 “알았다”고 말한 뒤, 인터폰으로 운전병에게 대기하도록 말하고, 초조한 모습을 남긴 채 나가 버렸다. 나로서는 배영룡이 왜 과장에게 사과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청년, 그리고 남편이요 아버지인 T군이 「티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배영룡은 왜 과장에게 사과하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타고난 보안부대원은 아니었다. 오희명의 대령진급문제가 절박해 있는 줄을 나는 알지 못했다.

석방되기 전에 T군은 “신세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딸을 위해 일본에서 가지고 온 바나나를 한 가닥씩 나누어 주고 “드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바나나를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딸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서였다(나의 월급은 고작 17만 원이었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라는 자가 총재로 앉아 있는 새마을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민정당의 정치자금을 위해 수입바나나의 값을 폭등시켜, 한 묶음이 아니고 한 가닥에 1천 5백 원에서 2천 원을 했다.

평화공작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방한이 결정된 1984년 이전의 일이다. 전두환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한국 국군보안사령부의 3기관에 대해서

밀명을 내렸다. “예산에 신경 쓰지 마, 청와대에서 공작금이 나온다. 종교계에 침투한 간첩을 교황 방한 이전에 색출하라”——이 특명공작은 평화의 사자라는 데서 이름을 따와 「평화공작」이라고 불렸다.

이 평화공작은 보안사령부 대공처 심사과장 서의남(徐義南) 육군중령과 전두환의 직접담판에 의해 승인·채택된 공작이다.

서의남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교육대 대공학(방첩이론) 교관이었다. 그는 뒷날 대학생들의 증오의 대상이 된 「학병제」, 즉 데모학생(의식화학생이라고도 부름)의 강제징병, 병영 내 순화, 신입대학생의 최전선부대 방문과 군사훈련을 골자로 하는, 반정부학생에 대한 군부의 대응책을 제시한 장본인이다.

양양의 경우

그들은 기독교계 반정부 인물을 대상으로 「거미줄공작」이라는 것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평화공작」에서 끌어들이는 정보를 토대로 발전시킴으로 독자적인 대공공작을 짜내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반정부활동 경력을 가진 재일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그 후에 일본에 유학한 두 사람의 청년이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이 공작은 「원자」, 「박쥐」공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두쌍의 부부는 공항만수배의 A급(출·입국시 신병확보조치)이 취해져 있었다. 그래서 5계는 현재 이 사람들의 귀국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혐의는 다만 반정부활동의 전력이었다. 내근에서 평화공작으로 둘러진 정명희 등 두 명의 여성 수사관은 「문제 종교인」인 함세웅 신부의 성당에 일반신자를 가장해 침투했다. 특히 청년회운동에 밀착해서 등산회와 친목회 등의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가하고, 그 자세한 동향을 서의남에게 보고해 왔다. “일요일에도 미사 때문에 나는 쉬지 못해요. 그저 안절부절이죠”라는 것이 내근사무소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 했던 미스 정의 불평이었다.

이원협(李源鉞) 하사는 미스 조와 콤비가 되어 학원가를 헤집고 다녔다.

1975년, 「민청학련사건」이라고 불리는 본국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이 전개되자마자 서의남은 공작과 계장으로서는 학생사냥에 광분했다. 이때, 도주학생 검거에 실제 성과를 올린 것이 이원협 병장이다. 이원협은 일본에서 오는 모든 편지를 수사과에 가지고 왔다. 나는 모국유학생들에게 오는 편지를 빠

김없이 다 읽었다. 그들은 상상으로 연락책임자의 근원을 제일 대한크리스
트교회의 청년운동에 관계하는 인물에서 구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L양이라는 제일한국 여성이었다. 그래
서 그들은 L양의 전화, 편지를 조사하는 데 광분했다. L양의 하숙집 할머니
를 매수한 뒤 미스 조를 공작원으로 해서 L양의 옆방에 하숙시켰다. 슬픈인
미스 조는 서의남 심사과장의 기대에 어김없이 L양 접근에 성공했다. 그들
은 설악산 여행까지 갔다 왔다.

상사병

L양은 매일 도서관에 처박혀 학업에 열중했고 정치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여자였다. 김성구 준위는 가르쳐 주었다. '스파이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면 「상사병」에 걸리고 만다.' 하물며 수사과에서 첫째로 미처
날뛰는 얼치기가 상사병에 걸렸으니, 이원협 심리상태는 알 만하지 않는
가.

“이원협씨, 이제 그 애를 쫓는 것을 그만 두는 것이 낫잖아?”

나는 L양의 편지를 번역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편
지에는 복과의 연계를 시사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만들기만 하면 되지 않아?”

나는 아직 풋나기인 이에게, ‘왜 스파이로 안되는가’를 깨우쳐 주려고 술
자리를 벌인 적이 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풋나기가 펼친 보자기

「평화공작」의 대상자인 L양이, 84년 7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다.
다시 내한할 예정이 없다는 미스 조의 보고를 받은 서의남은 당황해서 김포
에서 동경으로 떠나려는 L양을 연행했다. 물론 이원협이 앞장섰고, 그대로
담당수사관이 되었다. 그들은 L양을 데리고 과천에 있는 심사과 분실로 직
행했다.

이원협이 내근사무소의 전화로 나를 불렀다.

“김병진씨, 좀 묻겠는데, 조총련본부의 건물이 몇 층이죠?”

나는 여기저기서 알아보다가

“4·5층 정도라고들 하던데” 라고 말했다.

“이상하다. 본인은 3층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 3층이든 4층이든
같은 거야”

“이 하사, 아직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김병진씨, 그렇게 초조할 건 없어. 사실 L은 북한에서 김일성뱃지
까지 받은 초일류의 여스파이니까. 조사할 것은 산같이 남아 있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대남공작원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김일성뱃
지나 기타 제품을 준 실례는 한 번도 없었다.

사태는 명백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서의남 과장의 묵인하에 「만들고 있
는」 것이다. 나는 싫증이 나도록 L양의 편지를 번역해서 그녀의 마음이 섬세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섬세한 마음이 고문 앞에 산산가루로 부서진 채,
주어진 줄거리 앞에서 그녀는 ‘예’라고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주심(주임심사관)은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나요.”

사태는 최악이었다. 이 풋나기에게는 사람과 진실을 판단할 힘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문에 찌든 L양의 모습에 대한 서글픈 생각과
는 별도로,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 이것으로는 송치가
안된다고. 베테랑수사관이라면 L양을 스파이로 만들어, 포상금 6백만 원
이상, 보국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방부장관표창, 보안사령관
표창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풋나기가 펼쳐놓은 보자기는 너무 컸었다. 누
가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원협 하사가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해 간다
면 상부층은 그 내용에 어리둥절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L양의 몸과 마음은 계속 들볶일 것이다.

3계와 5계

L양이 연행되기 1개월쯤 전에, 5계의 김상린 소령이 나를 자기의 사무소
로 불렀다.

“김병진씨, 조일지의 가택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일본책이 많아. 그 내
용을 몰라서 답답해. 함께 가주지 않을까요?”

내근계에서의 나의 기본임무는 거수자 첩보분석(거수자—거동이 수상한

자), 검역우편의 번역, 일본의 공안과 경찰의 협력으로 보내지는 재일한국인 용의대상자의 외국인등록원본의 카피와 수사자료의 번역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대상자의 가택수색에까지 몰려 나가게 되었다.

조일지군의 서울 주소는 동대문구 동승동 외국인유학생 기숙사이다. 5계의 수사관들은 관리직원의 협력을 얻어, 그날은 마침 야유회로 학생들이 기숙사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숙사의 협조망을 통해 각 실의 사정을 수사관들은 잘 알고 있었다. 남아 있는 학생의 방에서 먼 계단을 통해, 5층 조일지군의 방에 접근해서 협조망이 준 열쇠로 방의 문을 열었다. 좌익계서적이나 북한서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택수색의 또 하나의 목표는(학생정보망의 제공인데), 조일지군이 뭔가 열심히 써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서류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것은 조군의 책상 속에서 쉽게 찾아냈다. 이 서류뭉치를 카피를 해서 감쪽같이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일행은 기숙사를 물러났다.

이 서류의 번역은 당연히 내가 맡아야 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센티멘타리즘으로 채색된 산문이었다. 김상린이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먼 글이었다. 이 글은 실은 조군이 쓴 것이 아니었다. 조군의 친구인 재일동포학생이 저널리스트 지망생으로서, 매일 칼럼을 쓰는 기분으로 쓴 글을 조군이 논평해 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쨌든, 이 문장이 나타나자 5계는, 조군이 대단히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적(북한)과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도 「공작원으로서의 위장에 철저해 있는」 때문이라고 이것을 제멋대로의 판단재료로써 이용했다.

수사과는 심사과의 평화공작에 대항하기 위해 온 과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있었다. 허칠중이라는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3계에도 하나의 책임량이 과해졌다. 허칠중군의 성과는 우종일이 109보안부대장 영전의 선물로 가지고 가버렸다. 지금의 오히려 과장으로서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3계도 오히려 지휘하에 성과를 하나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올 것이 왔다

3계의 김석호 공군상사는 자기들의 「연서계획」의 개요를 나에게 알려주면서 연세대학교부속 한국어학당의 재외동포 명부의 카피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하나의 대상을 지적했다.

“조신치……”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서류 속에 첨부된 조신치군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병진씨, 알고 있군요?”

김석호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신치의 자료는 전부 2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계의 일이 아닙니까?”

2계의 이덕룡이 모아 가지고 있던 조군에 관한 자료를 보고, 나는 조군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같은 연세대학교 구내에 있으면서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일이 없이, 서로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기였다. 2계의 이덕룡은, “조신치는 어학연수를 위한 단기체재요, 출입국 횟수도 적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군이 서울에 있는가 하는 정도의 감개만 가졌을 뿐 그의 일을 걱정 안하고 있었다.

“좋아요. 2계도 양지사항이요. 이번에 님게(연행조사) 되어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연행조사된 재일동포학생은 다행히 면식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데 조군은 그렇지 않다.

조군과 나의 연계라는 것은 일본 고교시대(조선장학회에서)의 일이다. 조군은 효오고(兵庫)현의 아마자끼공업고교에 다녔고, 학년은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3계는 근년에 조선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일본에서 유학생 활을 보낸 사람을 스파이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자들의 편견 앞에서 조신치군이 어디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조신치군이 스파이라는 재료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조신치군의 연행조서를 전제로 하는 이상, 내가 그들로부터 어색한 거짓말이나 허식에 의해 도망갈 수는 없다.

일의 발단은, 「근원」을 찾기 위해 김석호가 「연서계획」대상자, 즉 대체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다니는 재일한국인들의 하숙집을 돌아다닐 때, 하숙집 주인이 조신치군은 “반정부데모에 대단히 동정적인 교포학생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데모가 있는 날에는 방에서 열심히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등등 그럴싸한 말도 붙여 왔다. 또 조신치

군은 대만과 미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관계로 「국내에서의 어학연수라는 단기체제는, 조신치의 공작임무가 제3국을 통한 연락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같은 망상까지도 보태져 버렸다. 2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였던 것이 3계에서는 「연락책임자」론에 의해 긍정되었던 것이다.

3계는 벌써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조신치군의 주변에 부식시킨 협조망으로부터 3계는 조군의 상세한 언동과 교우관계를 파악하고, 전두환정권에 대한 조군의 비판적 언사를 가지고 「고무찬양죄」까지 연계시킬 것을 잡았다고 한다. 조신치군을 스파이로 만들기 위한 「활동사항」은 되어 있으니, 나머지는 일본에서 조군을 「포섭」하고 스파이로서 파견한 「지도원」만 붙여진다면, 훌륭한 스파이가 되어 버린다는 단계였던 것이다.

조선인차별 규탄투쟁으로 유명한 조군의 출신고교 선에서도, 조선장학회의 선에서도 조신치군은 「만들어졌다」. 김석호의 말로 한다면, 「만들어도 된다」이다. 내가 조신치군의 연행 조사를 알았을 때에는 벌써 이러한 사태까지 되어 있었다.

황당무제한 스토리

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수사과의 활동은 한층 활발해졌다. 2계는 T군의 아픈 실점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대상을 찾고 파헤치다가, 먼저의 T군과 같은 조건인—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인데, 윤정현(尹正憲)씨를 「선두타자」로 해버렸다. 일본에서의 대학생활경험, 취직, 그 후 본국유학이라는, 그러한 조건보다도 더 좋은 자료를 일본에 있는 협조망인 강패두목 야나가와젠지로오라는 명함을 뿌리는 재일한국인 양원석이 제공했다. 그가 동경공안의 사노, 대판 공안의 이시다(石田) 조사과장이라든가 경도부경 의사과의 후쿠모도(福本)형사, 이런 자들이 보내주는 윤정현씨에 관한 공안자료로부터 윤정현씨의 가족이 이전에 조총련과 관계가 있는 사실, 그리고 윤정현 자신이 경도대학 농학부에 다닐 때 조총련산하의 학생조직인 유학동과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알려오므로써 배영룡은 윤씨를 「1번타자」로 지명했던 것이다.

당시, 동경 공안을 정년퇴직한 사노이찌로오에게 한국 국군보안사령부는 사령관 박준병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박사건」이라는 성과에

대한 감사였다. 나는 일본인에 보내는 감사패에 일본어 역문을 붙이는 일에 종사했다. 양원석에 대해서는 김용성의 뒤를 이은 배영룡의 주선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처음인 보국훈장 수여가 상신되어, 후일 양원석은 훈장을 손에 넣었다.

장교진급심사가 있는 연말까지는 애드벌룬을 올려서 진급경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서 심사과 서의남 중령의 기세를 생각하면, 수사과장 오히명의 각오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대체로 꼭 가을에 스파이 검거 보도가 행해지는 것은 이러한 집안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대상자가 일본에서 입국하는 시점, 즉 8월 말부터 「공개수사(연행조사)」를 개시한다는 수사과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김포공항에 내린 때를 겨누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 학생이 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쪽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에어포켓과 같은 순간을 겨냥해서 「뉴기」를 결정하기 때문이었다.

이 수사과의 방침이 결정될 무렵, 심사과가 연행한 L양은 아직 과천 심사과 분실에 있었다. 서의남의 초조감으로 해서 출국시에 연행된 L양은 벌써 1개월 가까이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서의남에게 인사한 L양의 애교는 이제 진작 사라졌을 것이다. 통산 3개월이나 지속될 L양의 연금을 생각하면, 아직 초반전이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난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는 사람인 윤정현씨와 조신치군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설사 보안사의 눈을 피해서 연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몇년간이나 소식이 없었고, 보도에서는 스파이로서 기소되어 형무소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나의 갑작스러운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일까. 일소에 붙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연행된 뒤, 그들의 입에서 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 내 가족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자꾸만 달혀져 갔다.

L양에 대해서 폭력과 공갈로 공술을 얻어 왔지만, 그것은 오로지 유도신문이었고 이 하사의 단세포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임이 증명되었다. 허구의

빠대에 살을 붙이려고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결점을 그는 깨달았다. 「지도원이 없다」—.

그 「지도원」은 크리스찬을 위장한 북의 공작원이 아니면 안된다. 이 하사의 스토리로 끌고 가려면 일본에 있는 그 인물을 연행해서 고문에 의해서 득의에 찬 허위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일본통인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가라는 것이, 심사과 이 하사의 전화내용이었다. 내게 있어서는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김병진씨, 어떻게 됐어? 침울한 표정을 하고. 심사과 전화가 수상쩍지?”

내 직속상관인 조기재(曹基在) 정보분석 반장의 말이었다.

“여, 노 상병, 심사과에서 김병진씨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없다고 해.”

심사과의 노력과 이원협외의 헌신을 즐겨하지 않는 수사과의 분위기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시작된 스파이사냥

8월 말일, 2계가 신학기의 등록을 위해 고려대학교를 향하고 있는 윤정현씨를 대학 정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숨었다가 연행했다. 그날밤은 비가 몹시 내렸다. 나는 2계의 최홍상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현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금방 와서…… 물건이 될지 어떨지 지금은 모르겠어.”

“본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응, 본인은 내일이라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스파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아까부터 최홍상의 말이 어쩐지 애매하다고 생각되었다.

“아니, 그렇지 않고. 곧 돌려 보낸다고 우리들이 말했을 뿐이다. 심사는 이제부터야.”

언제나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조사는 시작된다.

“내가 한번 분실로 나갈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들만으로 조사하기로 되어 있어.”

이 말은 내게 전화가 걸려 왔었다고 분실의 병사가 알린 후, 최홍상이 배영룡 계장에게서 주의를 받았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배영룡은 내가 윤정현씨와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고병천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모라는 경도대학 조문연의 간사장이던 사람을 모르는가?”

“그럼, 윤정현은 유학동에 있었나요?”

“집에 곧 보내줄 테니까 믿고 말하라고 했더니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유라는 사람은 알고 있는가?”

“유학동과는 인연이 없어서요. 게다가 경도라서.”

“아아, 괜찮아. 지도원의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도 짧은 시간에 성과가 있었다.”

만들어진다…… 2계에 있어서는 윤정현씨가 어느 정도까지 유학동, 즉 조총련산하의 대학생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가는 아무래도 좋다. 유모라는, 윤정현씨가 대학에 다닐 당시 조문연의 간사장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날 오후 수사과장은 나를 자기 방에 불러 들였다.

“이제부터 피의자가 계속 분실로 들어온다. 네가 각 외근을 지원하는 편이 더 좋을 거야. 알겠어? 심사과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마. 이것은 과장의 명령이다!”

윤정현씨가 연행된 다음날, 나는 분실로 달려갔다. 배영룡 2계장과 다른 계원들은 어제 막 연행해 온 윤정현이라는 물건을 「작품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남은 연행대상은 모두 재일동포유학생이었다.

아수

김상린이 말했다.

“김병진씨도 심사실에 같이 들어와 줘!”

“아니, 계장, 웬만한 일본어라면 나라도 충분해요.”

박용호 준위의 말에 나는 순간 구원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김상린은 “무슨 소리야. 그 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 나올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통역이 필요해. 김병진씨가 들어와 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기계실에는 이미 TV와 마이크의 스위치가 놓여져 있었다. 가택수색 때

사진으로 본 조일지군의 실물이 거기에 있었다. 조일지군의 얼굴은 흥조를 띠었고 시선은 초점이 없어 멍해 보였다. 그의 심장의 고동이 들리는 것같은 착각을 느꼈다. 50대인 박용호 준위가 말했다.

“요런 애송이 요리하는 데는 시간이 안걸려. 첫탕부터 고문이야.”

이 분실 가운데서도 별관이라고 불리는 피의자 수용동은, 지하실에 수십 개의 간이침대가 붙은 방과 지상에 조금 넓은 10개 남짓한 심사실, 거기에 엘리베이터실(고문용의 엘리베이터 의자와 기타 장치가 있는데, 서빙고보다는 훨씬 근대화되어 있다), 거짓말 탐지기실, 기계실로 되어 있는데, 지상 제일 동쪽방에는 윤정현씨가, 반대쪽 끝방에는 조일지군이 수용되어 있었다.

박영호가 서툰 일본말로 물었다.

“조일지, 왜 네가 끌려 왔는지 알고 있나?”

조군은 머리를 모로 흔들었다.

“모르면 알도록 해줄까? 알았나, 여기는 북쪽 스파이를 조사하는 곳이야. 네가 스파이니까 데려온 거야!”

조군은 아연한 기색이고, 박용호는 말을 계속했다.

“이쪽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네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결코 나쁘게는 안해. 그렇지 않으면 조일지, 너의 안전은 보장 못해.”

조군은 여전히 상황이 납득 안된다는 표정으로 그저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몰라? 야, 조일지!”

“빨리 말하고 맘 편히 있어. 빨랑 여기서 나가야지!”

다른 수사관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박용호(朴龍浩)의 추궁에 호응했다.

“빨리 말해. 그래서 빨리 돌아가 줘!”

박용호는 책상을 탕 치며 말했다. 조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박용호는 서투른 일본말을 뽕개치고, 갑자기 한국말로 조일지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새끼! 사람이 점잖게 타일러 주려고 했더니 제멋에 놀아나! 대체 몇 번 북한영화를 봤지?”

박용호는 아까부터 그냥 서있는 조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 가슴패기를 움켜잡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조군은 소리를 냈다.

“본 일이 없습니다.”

그 한 마디로 네 사람의 수사관은 야수로 변신했다. 조군은 그자들에게 채이고 휘둘러지고 끌렸다.

“맛이 어때! 북한영화를 몇 번 봤나?”

“본 일이 없습니다.”

박용호의 오른주먹이 조군의 얼굴을 강타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돌려졌다. 그때 “두세 번은 보았습니다”라는 조군의 말이 튀어 나오고 있었다.

“조일지, 그렇지!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아픈풀 당하지 않고 끝나는 거야.”

이종빈(李鍾彬)이라는 5계의 문관이 조일지군에게 타이르듯이 말을 걸었다.

“겨우 입을 벌리게 된 것같구나. 갑자기 이것저것 물으면 괴로울 테니까 좀 시간을 주지. 천천히 생각하는 거야.”

수사관 일행은 그 방에서 나와 기계실로 돌아왔다. 김상린이 모니터에 달라 붙어 있었다. 초반 성과로서는 합격이었다. 그들은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초반에 북한영화를 보았다고 하는 「자백」을 끌어낸 것으로 「만들어 진다」라는 안도의 분위기가 5계의 계원들과 김상린 사이에 넘치고 있었다. 추궁할 재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날 중으로, 조일지군은 자기가 다니고 있던 광도전기고교의 교사의 권유로 조총련본부의 고교생모임인 「학생회」에 몇 번 나갔고, 그 자리에서 북한영화를 보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옳지 되었다!

다음날 조신치군이 연행되었다. 하루 걸러 세 사람의 피의자가 1번타자로 나란히 나왔다. 박성준 3계장이 모니터의 정면 의자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김병진씨, 조신치가 결국 왔어. 제일 마지막에 오는 바람에 적잖이 안달을 했지.”

조신치군도 조일지군도 소지품을 몰수당한 후, 3계의 김석진(金錫鎭)을 선두로 두 사람의 계원이 화면에 등장했다. 조신치군은 김석진의 질문에 두

손을 크게 벌리는 시늉을 하면서 대답했다.

“…… 왜 내가 여기에 끌려 왔는지 모릅니다. 왜 ……”

두 수사관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조군을 꿰어 앉힌 후,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웠다. 두 수사관이 각목 끝에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 뒀다. 조군은 비명을 질렀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스쳤다. 김석진이 지도원은 누구냐고 다그쳐 물었다.

“남조선의 혁명을 하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말이다!”라고 용어의 해설까지 하면서, 조군의 고교시대와 일본, 그리고 대만 유학의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조신치군의 비명은 계속되었다.

“말할게요 ……”

고통을 참지 못해 조신치군이 간신히 말을 했을 때, 두 수사관은 각목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조신치군의 말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고문은 반복되었다. 그런 일이 세번쯤 반복된 후, 조신치군은 완전히 기력을 잃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김석진이 물었다.

“네가 일본에서 만난 조총련계의 인물은 누구 누구야?”

조신치군은 아마자끼공업고교의 선배로 조총련계의 청년조직에 가입한 인물과, 조선장학회의 조총련계 직원의 이름을 들었다. 박성준이 내 곁에서 환성을 올렸다.

“울—지, 되었다!”

나는 그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조일지군의 경우

세 사람의 제일동포는, 마치 당번제도처럼 그날부터 교대로 한밤중에 엘리베이터실로 들어갔다. 세 개의 계는 무엇 때문인지 고문의 알맹이를 알리지 않을 양으로 쭉뚝뚝 복도를 왔다갔다했고, 꼭 한밤중에 그들의 「공사」를 진행시켰다. 전기공사(전기고문), 수도공사(물고문), 토목공사(각목 폭력) — 고문방은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음날 어느 계의 수사관이 초조해 있는가로, 어젯밤 사냥물이 누구인가를 알아냈다.

나는 조일지군의 전속통역이 되어, 조군의 방이 나의 포지션과 같이 되었다. 조일지군이 고교시절, 조총련계의 인물과 면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주체의 나라 조선」이라는 요미우리신문사가 출판한 책은, 고교시절에 학교의 선생이 읽어 보라고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이 조군의 입에서 나왔다.

5계는 입장이 곤란했다. 조총련계와의 관계가, 어떤 형태이든 조금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수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일지라는 「물품」을 만들 수가 없다. 고무찬양죄를 들쭉춘다 하더라도, 조군의 고교시대로 한다면 벌써 시효가 지났다.

김상린은 격노해서 부하를 질책했다. 박영호와 이종빈이 교대로 조군의 심사를 행하며 회유와 애원을 거듭했다. 5계가 부딪친 벽은 조군이 고교 졸업 후 「학생회」의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조일지군은 폭행을 당할 때마다 호소하는 듯한 눈길로 나를 쳐다봤다. 조군은 “당신이라면 이해되지요?”라고 나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나는 내딴으로는 무표정을 가장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김상린으로부터 질책과 지시를 받았다.

“왜 조일지에게 욕설 한 마디 퍼붓지 않지?”

그 이유의 하나는, 조군이 나에게 마음의 일부라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김상린은 생각했던 것이다.

“내 눈 앞에서 조군을 꾸짖는 거야. 귀싸대기도 한 대 앵기구. 그렇잖으면 이 사건은 해결이 안돼!”

김상린과 나는 심사실로 들어갔다.

“조일지,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말한 것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모르지? 통역하는 김선생이, 네 말을 충실하게 번역해 주기 때문에 네가 우쭐해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암전해 보이는 김선생도 네 말을 믿지 않고 있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직접 물어 봐”

김상린은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끔 홀륭하게 유도했다. 나는 뱃속에서 쿵 치미는 것이 있음을 느꼈다.

“김선생, 그렇지 않아요? 이 자식에게 한 마디라도 해 주지?”

김상린은 나를 재촉했다. 순간 내 마음은 싸늘해졌다.

“조일지, 언제까지 시간을 낭비할 거냐. 이렇게 해서도 사실을 말하지 않

으면 돼지우리에 처넣을 거야!”

조일지군은 몸에 힘이 빠진 듯 아연해 하고 있었다. 조군은 나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다. 조일지군에 대한 죄의식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김상린이 한 없이 미웠다.

조작한 구조

며칠이 지났다. 조일지군의 나에 대한 태도는 달라졌다.

드디어 이종빈이 한밤중에 조군의 「회유」에 성공했다. 북쪽과 남쪽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중립이라고 고집하는 조군을 「북쪽에 동정적」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설득했다. 내가 내무반에서 자고 있을 때였다.

“일어나, 김병진! 조일지가 실패했다, 실패했어!”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 이종빈은 도합 6시간 동안 조군을 설득했던 것이다. 조군은 수사관들의 강압에 저서 「타협」했던 것이다.

조일지군은 몇 번이나 전언을 뒤집어 엮으려고 시도했지만 5계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조군은 결국 「진실을 말하면 돌려보낸다」는 말에 속은 것이다. 그 허위의 유도 때문에, 5계가 제시하는 암시를 타고 조군은 벌써 제멋대로 말을 만들어내게끔 되어 버렸다. 조작된 이야기는 이러했다.

조일지군은 고교를 졸업하고, 경도산업대학에 진학해서 하숙하고 있었다. 그 하숙집에 「야마모도(山本)」로 자처하는 「북괴대남공작 지도원」인 남자가 나타나, 히로시마의 조총련청년간부의 친구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 뒤 「포섭」되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며 「교양」을 받았다. 대학졸업후, 한 때 히로시마에서 취직했지만, 그 지도원의 지령에 의해 한국에 유학했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작인 것이다.

우선 첫째로, 조일지군이 정말로 고교시대부터 북의 사상에 공명한 김일성주의자였다면, 지하공작원으로 포섭되기 이전에, 경도에 있는 조총련산하 학생조직인 재일본 유학동에 가맹했을 것이다. 둘째로, 히로시마에 있는 조총련의 인물 소개로 공작지도원이 접촉해 왔다면, 그 공작원을 소개한 히로시마의 인물이 중개인으로서 활약한 내막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야마모도라는, 너무나도 억지로 붙인 공작원은 가공인물이라는 것이 내다

보인다. 셋째로, 북의 공작원이 조일지군을 참으로 한국에 침투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권우직녀도 아닌데 일 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의 접촉만으로 공작을 실행하도록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전혀 비현실적이지 아닌가! 넷째로, 조일지군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했다. 한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만한 일조차 알지 못했다. 또 약간의 북에 관한 지식은, 심사실 안에서 배운 것이었다.

사실, 이 날조의 구조는 2계의 윤정현씨, 3계의 조신치군에 대해서도 들어맞았다. 윤정현씨는, 경도대학 조문연의 간부에 포섭되어 만경봉호를 타고 북조선을 방문해, 스파이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윤정현씨가 송검된 단계에서 뒤집혀지고 말았다. 송검 후, 감사의 요구로 북에 갔다온 구체적 증거를 모으기 위해 2계의 장병화가 교사라는 위장 패스포트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재일협조망민 동경 공안 OB 사노 이찌로오의 주선으로 니이가타와 동경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윤씨의 출입국 기록을 뒤져봤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윤씨는 북에 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국민을 「중대거리」라고 부르는 센스

L양에 대한 조사는 벌써 진흙탕에 빠진 격이었다. 갈광질광하는 서의남 심사과장은, 만일 L양이 안되면 그 접촉인물인 고영자(高英子)양이라도 「작품」이 되지 않을까하는 한가닥 희망을 걸고 벌써 연행해 왔다.

L양은, 이원협이 들어오는 것을 걸눈으로 보면서 몸을 떨며 뒷걸음을 쳤다. 이원협은 미국제 소형전기고문기를 뽕무늬에 차고 있었다. 떨고 있는 L양에게 “아직도 사실을 말할 수 없나!”라는 노성을 지르는가 했더니, 철제 의자를 향해 고문기의 불꽃을 날린다. L양은 “악!”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다른 방에는 고영자양이 간혀 있었다.

이 두 여자의 연행 역시, 서의남의 황당무계한 꿈과 전두환의 국민에 대한 우둔하고 미련한 지배의식이 그 발단이었다.

「보안사령부는 국민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라.」

「평화공작에 매진해서 반드시 성과를 올리도록 하라.」

이것이 당시, 대통령교서라는 인쇄물의 알맹이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봉건시대의 군주의 감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기 보다는 아연실색한 기분으로 그 교서를 바라본 기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김성구 준위와 김원일 중사가 정색을 하고 한 말인데, “로마의 중대거리가 오기 전에 반드시 종교계에서 스파이를 색출해내라”고 전두환은 청와대에서 야비한 말을 토했다고 한다.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를 소위 일국의 대통령인 전두환은, 국빈을 중대거리라고 불렀던 것이다. 자기를 통치권자다, 대통령이더라고 호언하는 이 파렴치한자와, 반정부적인 것만으로 대학생을 징벌·징병할 것을 생각해낸 서의남, 이 두 사람의 음모의 결과가 이 여성들의 연행이었다.

신동기의 실태

스파이검거의 포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미국과 일본을 1주일 정도 「시찰」하고 돌아온 수사관 중에 5명의 신동기가 있었다. 외화지출이 제한된 조건이었기 때문에 모두 암달라를 준비한 여행이었다. 그들의 귀국담으로 내근사무소는 매일 웃음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사람인 신동기만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여느때의 멋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근사무소에 나타나 처장실에서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신동기가 대단한 실태를 연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실태란 이렇다. 전라남도 목포출신인 신동기가 재미한국인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향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김대중과 같은 자식은, 내가 권총으로 쏘 죽일 테다!”라고 ‘말씀해’버렸던 것이다. 당시, 쫓겨서 미국에 체재하고 있던 김대중씨도 목포출신의 인물이었는데, 그의 귀에까지 그 말이 들어갔으니 정치문제화 되었다.

보안사령부가 김대중씨의 암살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김대중씨와 그의 측근들은 미국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미국정부는 공식루—트를 통해서(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보내온 영어공문서 카피를 나는 사무소에서 볼 수 있었지만) 「Dong-gi Shin」이라는 이름까지 들면서 한국정부에 각서를 보냈다. 외무부의 연락에 보안사령부는 당황했다. 그 선후책 때문에 신동기는 매일 아침 대기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동기는 결국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최경조 처장이 일을 적당히 해결한 것이다. 최근 한국의 월간지 『신동아』에 보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실언」한 박희도 육군대장과는 별도로, 김대중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겠다고 발언한 사람으로 육군본부의 보안부대 부대장 최장군이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당시의 최경조 처장이다. 최경조도 신동기에게 심정적으로 공명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사과는 인사동에서 망년회를 했다. 각 외근이 모조리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 오희명 과장의 대령진급이 내정됐다는 사실로 떠들석했다. 「위하여！」가 연발되었다.

1985년

정보분석반의 동료 윤여섭(尹汝燮) 중사가 내놓는 첩보자료는 이러했다.

민단 오까야마(岡山)현 본부의 총무부장이라는 간사직에 있는 용의자 유지길(柳志吉)의, 친형과 형수 가족은 일본에서 북송선을 타고 입북해서 현재 북한에 살고 있다. 거기에다 형 두 사람은 조총련의 분회장과 조총련계 상공회의 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불은자」라는 것이다. 이것만을 보아도 스파이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됐다. 더구나 첩보에 의하면, 등산복 차림으로 가끔 외출하고, 일단 집을 나간 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오까야마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입북(북조선에 가서 스파이교육을 받음)」의 암시가 그럴싸하게 되어 있었다.

또 이러한 대목도 있었다. 민단 오까야마의 단장선출 선거에 얽혀, 조총련으로부터 특정후보자에게 다액의 현금이 흘러들었는데, 용의자가 그 다리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에게 모략을 확신시키는 최초의 항목이었다.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민단 현본부 집행부 자체가 스파이조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용의자가 단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현단장인 한, 그 단장이야말로 스파이의 첫째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첩보보고에는 그러한 방향제시는 일체 없었다. 유지길이라는 금융업자 하나만이 공격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용의자는 매년이다시피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방문목적은 신체장애자 시설에 의자차를 기부하고 돌아다니는 자선사업이었다. 그런 사람이 돈으로 모략을 꾸며 민단와해를 도모하고 있는 스파이일까? 「배후

불은」은 제일동포 사회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널려 있는 이야기다.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가려낼 작정은 아니지만, 그 이외의 일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내사를 진전시켜 가면 첩보가치가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코일이 성기에 ……

최경조는 준장으로 진급되어 육군본부를 관할하는 701보안부대의 부대장에 영전했다. 오희명은 대령으로 진급해서, 최경조를 대신해서 새로 대공처장의 자리에 앉은 이영국(李榮國) 육군대령의 보좌관으로서 사령부에 남아 있었다.

이영국의 신임인사가 전대공처직원을 모아 놓은 사령부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예정보다 늦게 강당에 온 그는,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만을 했다.

“나는 영등포에서 입후보한 이찬혁(李贊赫)이라는 인물과는 티끌만한 면식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의 당선을 위해서 분골쇄신 돌아다니고 있다. 왜냐? …… 보안사령부를 위함이고, 각하를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조국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다. 대공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표씩만 모아주세요. 지금의 시국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민정당을 위한 표모으기에 힘써 달라는 말을 늘어 놓는 것만으로 신임인사는 끝났다.

나는 이 영터리 신임인사에 가슴이 더 무거워진 채 1985년 5월 16일, 단 세 시간 동안의 일본출장을 다녀왔다.

내가 일본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5계는 유지길씨를 부산 동래온천에서 연행했다. 일본의 5월의 연휴를 이용해서 단체로 한국에 와있는 용의자가 단체행동이 끝나 동행자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틈을 타서, 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502의 부대원이 호텔에서 밤중에 연행했다.

내가 5계장으로부터 분실로 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은 토요일이었다. 아무런 사건도 없을 때는 나도 보통의 셀러리맨처럼 주말을 뜻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김상린 계장 …… 조일지군 사건이 생각나서 아무래도 수상쩍었

다.

“피의자가 수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빨리 번역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어!”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쉬지도 못하고 목적지로 달려갔다. 유지길씨의 수첩 내용을 곧 한글타자기로 쳐서 번역했다. 계획표같은 것이었다. 때때로 「R」이라든가 「H」, 「석」이라든가의, 뭔가 생략한 문자가 눈에 띄었다. 번역을 옆에서 보면서 이원협(윤여섭과 같이 그도 이 해부터 5계에 있었다)이 “이자식, 제법 암호까지 써!”라고 말했다. 벌써 처음부터 스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L양과 고영자양의 경우에도 꼭 이런 식이었겠지. 이용의자는 43세. 역시 액년이라는 것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먼것번의 C씨도 그때 43세였다.

일본에서 정보를 제공해 준 유일록(柳一錄)이 지명한 「재일공작지도원」, 유재식(가명)이라는 조총련간부의 이름과 주소같은 것을 주의해서 찾아달라고 말했지만, 그 수첩에는 없었다.

정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라는 성이 많았다. 뒷날 유지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부터 오카야마에는 「유」라는 집단부락이 있어서 유씨의 종문부락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씨가 많다는 것이다.

“김병진씨, 민단의 간부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공산당이라는 말을 모른다는 것이 믿어져?”

김상린이 나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공산당이라는 한국어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추측과는 정반대로, 유지길씨는 「공산당」이라는 말을 실제로 몰랐다. 후일 5계의 직원들로부터 들은 것인데, 연행 첫날 「공산당」이라는 한국어를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라는 실갱이만으로 3시간이나 다다끼(일본어의 「때린다」에서 온 그들의 은어)를 했다는 것이다. 유지길씨는 일본에서 가라테 도장에 다닌 관계로 힘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를 가다듬어 웅전할 태세로 임하고 있었는데, 네 사람이 달려들어 팔을 비틀어 몽개버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한자를 써서 보여주니까 “아아— 교산도— 까”라고 말하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나는 허둥지둥 번역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다. 스파이심사라는 것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작년의 일련의 일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김상린이 또 나를 제지했다.

“피의자는 생판 한국어를 몰라. 박호순(朴鎬淳—오희명의 후임)과장과 오세인 소령에게는 잘 이야기해 놓을게 통역해 줘.”

내가 간 날 밤부터 나도 심사실로 들어갔다. 통역하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아 유지길씨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유지길씨는 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은 약간 검고 윤기가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재일지도원」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다. 내가 그 말들을 통역하는 동안 유지길씨에게는 허세가 많은 수사용어가 갈팡질팡했다. 김석진이 일본어로 “오이 야나카와(柳川)”라고 유지길씨의 일본이름을 부르면서 힐문했지만, 대답은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엘리베이터실로 들어갔다. 나는 남아 있을려고 했지만, 김상린이 데리고 갔다. 유지길씨는 발가벗기어 의자에 앉혀졌고 두 손 두 발이 끈으로 꽂꽂 묶였다. 물이 끼얹어진 유지길의 시선은 적의에 차 있었다. 내가 보아온 젊은 학생들과는 어딘지 다른 모습이었다.

방 구석에 놓여 있던 군대 야전용 수동발전기에서 풀어낸 두 가닥 코일이 유지길씨의 손가락에 끼워졌다. 김석진이 발전기의 레바를 돌렸다. 유지길씨의 젖은 몸은 그때마다 앓음소리를 내며 떨었다. 김석진이 위협을 주려고 레바를 만지기만 해도, 유지길씨는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바라는 말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코일의 한 가닥을 성기에 꽂았다. 나도 몰래 밖으로 나갔다…….

유씨의 「자서전」

나는 엘리베이터실로 들어가지 않은 다른 수사관들과 “첩보가 아무래도 허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몇 사람의 수사관은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윤여섭이 나를 부르러 왔다.

“김병진씨, 좀 와 줘. 야나카와가, 통역해 준 그 사람이면 참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또 엘리베이터실로 들어간즉, “자, 데려 왔어. 통역선생과 둘 만이 있게

해줄 테니, 사실대로 지껄이는 거야” 김상린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수사관들과 같이 방을 나갔다. 또 달갑지 않은 장면이 되고 말았다. 유지길씨는 다른 사람이 모두 나가서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자, 몸이 묶인 자세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합니다. 불러 들여서…….”

말투가 뜻밖에도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까부터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라면 나의 기분을 알아 줄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묘한 당혹감을 느꼈다.

“부탁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는 말에 그렇다고 인정하면 나는 도움을 받습니까?”

어딘가에서 들은 대사였다. 그렇다. L군이다. 83년에 공소보류처분이 된 저 L군이였다.

“당신은, 수사관들이 말하고 있는것 중에, 참말로 마음에 쏘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원이라든가 포섭이라든가, 계다가 뭐더라 야나기 자이 쇼꾸(柳在植)라든가, 대체 누구의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질문이예요.”

나는 유지길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5계는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말만으로는 그들이 굽혀주지 않는다.

“……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최후까지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나의 대답은 수사관으로서는 하지 못할 말이 섞여 있었다. 피의자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5계는 유지길씨에 대한 공략 방법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선 취해진 방법은 유지길씨에게 「자서전」을 쓰도록 하는 일이었다. 인생의 궤적을 자세하게 문서화시켜서, 그것을 토대로 추궁재료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써, 이것은 김석진이 내놓은 안이었다. 이 수사는 결국 최후까지 김석진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자서전의 작성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그 번역은 물론 나의 일이었다. 덕분에 유지길씨의 일본어 글씨에 나는 아주 익숙해져 버렸다.

유지길씨는 가난한 조선인 가정의 5남으로 태어났다. 자수성가해서 금융업계에도 실적을 쌓았고, 오까야마현 민단본부의 총무부장까지 되었다.

「자서전」의 번역을 하면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일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민단사회라는 것은 돈의 힘으로 더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상업은행이라는 한국인의 금융기관을 무대로 한 불미스러운 일이트가, 경우회라든가 민단이라는 제일한국인의 공기를 사물화하려는 무리가 오까야마에도 있었다. 그 원흉의 한 사람으로서 유지길씨는 오까야마 민단의 전단장인 유일록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었다. 물론, 유지길씨는 유일록의 보고에 의해 자기가 이와 같은 곤경에 빠져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사람이 유일록의 원한을 산 이유는, 민단의 단장선거 때문이었다. 민단정화를 위해 지금은 고인이 된 초대 오까야마 민단 단장의 장남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유지길씨가 그 선거참모로서 유일록일파를 패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민단에서 2세대장이 탄생했다. 유일록의 말로는, 일련의 유지길씨의 행동이 민단와해공작이라는 것이었다.

자서전의 작성에서는 5계가 바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김석진이 유일록이 지목한 제일공작지도원 유재식을 “오까야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면 모를 리가 없다”고 유지길씨에게 압박질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유부락에 존장격으로 있던 사람이 조총련의 간부로 있었는데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사실만을 문서에 나타내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수사회의의 자리에서는 주장을 진술하는 것을 삼가했다. 나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했다. 단지, 개별적인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가 일본통이라는 사실을 방패로 모략설을 밀고 나갔다. 5계에서는 논의가 3분되었다. 스파이설과 모략설, 그리고 사고정지파로. 계장과 김석진, 이원협, 윤여섭(그는 첩보보고자로서 유지길씨를 스파이로 만들 경우, 훈장이 예약되어 있다)의 그룹은 왕강하게 스파이설을 굽히지 않았고, 신동기와 추재엽 등의 수사관들은 감히 주장을 진술하려고 하지 않았다.

언젠가, “저 자식을 진짜(스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신동기가 나에게 물었다. “아니, 이것은 틀림없는 모략이야”라고 내가 대답한즉,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너를 위해서다”라고

친절하게 충고해 주는 것이었다.

인간 바베큐

당초의 수사회의에서, 김상린은 모략설에 대해서 결론을 서둘지 말라고 견제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거듭되는 동안 “모략설을 말하는 것은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나서서 누구도 모략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뒤에 오늘은 「바베큐」를 행한다고 말했다. 수용동의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간 계단무도장에 바베큐의 준비가 마련되었다. 철제책상 두 개, 각목, 포승, 고추가룻물(약 10ℓ), 이러한 것들이 분실 관리병에 의해 준비되었다. 엘리베이터실 때와 마찬가지로 발가벗겨진 유지길씨가 끌려왔다. “김병진씨는 어디 있어!”라는 김상린의 목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렸다.

“안되잖아! 옆에 있지 않으면 피의자에게서 어떤 말이 튀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언제까지라도 잔인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유지길씨는 무릎을 끌어 안은 것같은 모습으로 두 손 두 다리가 포승으로 묶였다. 팔과 무릎 사이의 작은 틈에는 단단한 각목이 끼워져서, 그 나무의 양 끝을 집어 올려서 두 개의 철제 책상에 놓는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각의 각목 끝 위에 수사관이 앉았다. 유지길씨의 몸은 등이 아래쪽 바닥을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허공에 떠다. 추제엽이 젖은 수건으로 코와 눈을 닦았다.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은 입만 남았다.

“불어라, 불어!” “항복해!” 남자들의 욕지거리가 한층 높아졌다.

추제엽이 강통을 들었다. 생명을 잇고 있는 마지막 구멍에 새빨간 물이 부어졌다……. 나는 이 광경을 이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다…….

오랫동안, 지옥그림을 보았다. 실제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지금도 가슴이 안간다. 누군가가 “좀 기다려! 죽는다!”고 소리질렀다. 유지길씨의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김상린이 특 내뱉었다. 그래도 유지길씨의 몸은 움직여 주지 않는다. 잠시의 침묵이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다른 수사관이 “큰일 났어, 빨리 내려! 군의관을 불러!”라고 외쳤다. 그 한 마디로 「인간 바베큐」는 끝났다.

심사실로 안겨 들어온 유지길씨는 침대에 누워졌지만 의식은 아직 없었다. 군의관 대신 한방의사 자격을 가진 관리병이 맥을 짚었다. 의식을 잃었을 뿐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었다. 그 관리병은 나에게만 살짝 말했다. “무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김상린은 실신하고 있는 유지길씨에게 “요란한 연극은 하지 마!”라고 투덜거리면서 혼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결국 유지길씨는 일어나지 못했다.

유지길씨에게는 오래간만에 수면이 주어져 있을 때, 5계는 수사회의를 열고 있었다. 회의라고 해도 김석진의 계획을 듣는 것뿐이었다.

“저놈은 가라테를 해 와서 체력에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있어. 우선 그 체력을 완전히 소모시키지 않는 한, 기력을 죽일 수는 없다.”

유지길씨를 보고 와서 놀란 일이 몇 가지 있었다. 젊은 학생이라면 벌써 진작 기가 꺾여서 암전해질 시간이 지났건만, 수사관에 대한 적의와 반항심을 조금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일, 게다가 나오는 식사는 스프의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후룩후룩 뱃 속에 굶어넣는 일이었다. 나의 경우에는 나온 식사를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다. 무서운 정신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는 거라고 생각했다.

김상린이 기발한 안을 내놓았다.

“좋—아, 식사를 주지 마! 양을 훨씬 줄여!”

5계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유지길씨를 괴롭혔다. 식사는 소금을 잔뜩 뿌린 밥만으로 제한하고, 물은 한 방울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5계의 하는 방법이란 유치했다. 유치하기에 더 무서웠다. 침대에서 재우지 않고 하루종일 막대기를 발 사이에 끼워 정좌시키기도 하고, 이원협이 싸인펜을 몇 개씩 가지고 와서 손가락 사이에 끼워 고통을 주기도 했다. 이원협은 고문의 선봉대였다. 나는 고문할 때마다 통역 때문에 옆에서 그 광경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일지군의 때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민단와해공작」의 증거를 잡을 단서를 찾아내려고, 유지길씨에게 작문을 강요했다.

경우회에 들어간 경위, 상업은행에서 활동한 내용, 단장선거에서의 활